



## 제8강 - 별을 위한 행복한 춤사위

이 동 용 (철학아카데미)

### 1. 시성 괴테에게 한 마디

노래를 하고 싶어 했던 철학자 니체는 《즐거운 학문》을 노래로 시작하고 노래로 마감한다. 시들이 그 증거다. 그에게 노래는 “아침의 노래”<sup>(394쪽)</sup>였고 “햇살처럼 밝고 가볍고 날개 달린 노래”였으며 “귀뚜라미들을 내쫓는 것이 아니라, - 초대하여 함께 노래하고 춤추게 만드는 노래”였다. 노래하는 그의 영혼은 “오, 그대 은둔자, 미래의 음악가”였다. 그의 노랫소리를 듣고 싶다면 참고 견뎌야 한다. “참을성 없는 친구들”<sup>(394쪽)</sup>은 허무주의 철학이 너무도 버거울 지도 모른다.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것은 참을성이 부족한 탓이다.

하지만 꼭꼭 씹어 먹을 줄 아는 자에게 허무주의 철학은 좋은 음식이 되어준다. 맛난 음식 일 뿐만 아니라 몸에 좋은 영양가가 풍부한 음식이 되기도 하다. 인간은 매일 먹어야 한다. 인생의 대부분이 먹고 배설하면서 이루어진다. 일상은 이 일을 위해 진행된다고 보아도 할 말이 없다. 소위 ‘먹고 살기 위해’ 일을 하는 것이다. 먹고 살기 힘든 인생을 일컫는 말, 즉 ‘입에 풀칠하다’라는 속담도 있다. 여유가 없는 인생이다. 불행한 삶이다. 행복은 여유와 함께 찾아온다. 하루에 세 번의 식사 정도가 가장 이상적이라고 말한다. 그리고 한 번의 배설이 건강에 좋다고 한다. 먹는 족족 쏟아낸다면 그것 또한 건강에는 이로울 게 없다.

정신도 건강을 필요로 한다. 정신 건강은 생각하는 훈련을 통해 이루어진다. 꼭꼭 씹어 먹듯 사색을 많이 해야 한다. 니체는 많이 걸어 다녔던 것 같다. “발로 쓰다”<sup>(56쪽)</sup>가 대표적인 증거다. 그는 분명 산책을 많이 한 것 같다. 여행도 많이 했던 것 같다. 물론 이렇게 소극적으로 말하는 데는 이유가 있다. ‘많이’라는 말이 객관적이지 못해서다. 누구에게든 그것도 적다. 하지만 적어도 한 곳에 머무르며 생각했던 철학자는 분명 아니다. 허무주의 철학은 떠나면서 시작하고 돌아오면서 성숙해지는 과정의 철학이다. 돌고 도는 철학이다. 삶 속에서.

힘! 힘에의 감정! 이런 이념으로 니체는 《아침놀》을 집필했었다. 떠오르는 힘에의 감정이 충만했을 때 쓰여졌던 것이다. 그리고 그 힘으로 《즐거운 학문》을 말 그대로 즐기고 있다. 행복한 춤이 취지고 있는 것이다. 건강이 허락한 춤이다. 다리에 힘이 느껴진다. 눈을 감고도 음악의 정신에 몸을 허락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있기에 가능한 춤이다. 황홀하다. 행복하다. 이보다 더 좋은 표현이 또 어디 있을까? 이런 표현을 입에 담을 수 있을 때는 어떤 상황일까? 이런 단어에 감정이 따라주지 않는다면 허무주의 철학 자체가 힘들어진다.

허무주의 철학이 지향하는 이상은 건강과 힘이다. 이것보다 더 확실한 것은 없다. 위험한 비극의 시작을 목격하는 정신이다. 위험한 항해를 감행하려는 철학이다. 허무주의 철학이 아침놀의 현상 앞에서 인식하고 있는 이상은 지극히 아름답다. “그것은 인간적-초인간적인 행복과 선의라는 이상이지만, 종종 비인간적으로 보이기도 한다.”<sup>(393쪽)</sup> 수많은 오해는 허무주의 철학의 운명이라고 했다. 그것은 “가수의 저주”<sup>(395쪽)</sup>와 같다고 했다. 새로운 노래를 부르는 가수는 제대로 된 평가를 받아내기가 힘들다. 청중은 귀에 익은 노래에 박수를 쳐주는 반면 이해가 안 되는 것을 불편한 것으로 받아들인다. 이해를 한다는 그 느낌이 가져다주는 감동을 선호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허무주의 철학이 들려주는 노래는 어떻게 즐겨야 할지 전혀 감도 잡지 못한다. 새로운 리듬, 새로운 선율, 새로운 느낌 등 이것을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아침의 노래”<sup>(394쪽)</sup>를 들을 수 있는 귀는 도대체 어디에 있는가?

그래서 니체는 “올바른 독서의 미덕”(394쪽)을 전하고자 애를 썼던 것이다. 새로운 것을 대할 때는 성급함은 금물이다. 일단은 배운다는 마음으로 참고 견뎌야 한다. 낯선 목소리에 익숙해져야 한다. 낯선 분위기에 적응을 먼저 해야 한다. 낯설음이 익숙해질 때까지 ‘귀머거리 삼년, 병어리 삼년’으로 버텨야 한다. 독서는 분명 힘든 시집살이와 같다. 모든 것을 자기 마음대로 해서는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특히 허무주의 철학을 대할 때는 주변에 유리그릇이 가득한 가게에 들어간 것처럼 긴장된 발걸음으로 움직여야 한다. 함부로 움직였다가는 여러 그릇들이 깨진다. 가게를 영망진창으로 만드는 주범이 되지 않으려면 조심해야 한다. 잘못된 편견을 갖지 않으려면 일단은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훈련부터 해야 한다. 서라면 서고, 뛰라면 뛰고, 춤추라면 추고, 물구나무서라면 물구나무서기를 해야 한다. 의심과 비판 정신으로 음식의 맛을 느끼지는 못한다. 사랑을 하려면 선악의 선을 넘어야 한다. 잘 영근 사과가 맛있다. 정신의 맛이다. 잘 익을 때까지 좋은 햇빛을 받도록 해야 한다. 땅과 태양의 힘을 끌어 모으는 지혜가 필요하다. 잘 익은 사과 하나를 입안에 씹어 물었을 때 전해지는 느낌은 삶의 느낌이다. 신선한 바람이 얼굴을 감싸 안아 줄 때 ‘아~ 좋다~’하면서 행복한 마음을 가져보자. 한숨이 아니라 심호흡을 해보자. 상실감이 아니라 행복감을 품어보자. 삶은 힘들지만 그것 없이는 행복도 무의미하다. 이것을 인식하는 데 왜 이리 많은 문제가 있는 것일까? 함께 고민을 해보자.

니체는 괴테를 즐겨 읽었나보다. 그의 글 속에 등장하는 괴테는 친구처럼 느껴진다. 거부감이 없다. 신이 아니라 악마의 사자 메피스토펠레스와 결탁해서 그런가. 그의 언어가 자신의 언어처럼 구사되고 있는 듯하다. 서로 교감하고 있다고나 할까. 삶을 위한 고민에서 서로 통했다고나 할까. 괴테의 고전주의 이념은 니체의 생철학에 와서 좀더 넓은 물을 만난 듯하다. ‘괴테에게’ 개인적으로 말을 걸듯이 그렇게 한 편의 시를 집필하고 있다.

#### 괴테에게

불멸이란  
단지 그대의 비유!  
곤혹스러운 신은  
시인의 허구...

세계의 바퀴는 굴러  
목표와 목표를 스쳐간다  
고통 - 원한을 품은 자는 그것을 이렇게 부른다  
광대는 그것을 유희라고 부른다...

세계의 유희는 위풍당당하게  
존재와 가상을 뒤섞어놓는다  
영원한 어릿광대가  
우리를 뒤섞어놓는다 - 그 안으로! (399쪽)

“바보처럼 입 벌리고 살라!”<sup>1)</sup> 얽매이지 않은 정신은 바보처럼 보일 수는 있어도 건강하다.

1) : 바보처럼 입 벌리고 살라, in: 한국산문, vol. 117, 한국산문작가협회 2016.01, 30쪽.

건강한 정신은 얽매임이 없을 때 실현된다. 건강한 정신은 그 어떤 상황을 만나도 견딜 수 있는 힘이 있다. 아니 견디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그것을 즐길 줄도 안다. 건강한 정신은 광대짓을 운명으로 받아들인다. 광대에겐 모든 것이 유희의 대상이기 때문이다. 누구에겐 바보처럼 보여도 상관없다. “똑똑한 척하지 말고 바보처럼 살라 한다. 입 다물고 살지 말고 입을 벌리고 살라 한다. 내뱉지 않으면 비워지지 않는다고. 비워야 채울 수 있다고. 이성적인 행동에 얽매이지 말고 맘대로 살라고. 진정한 자유인을 꿈꾸고 싶다면 그것만이 해결책이라고. 바보가 건강하다고. 바보의 건강 비결을 배우라고. 긴장을 풀어야 재미난 삶이 펼쳐진다고. 세월이 가져다 준 바보의 가치는 강렬했다.”<sup>2)</sup> 어느 문우(文友)의 가르침이 이러했다.

우리는 흔히 바보를 싫어한다. 이성적인 사람으로 비춰지기를 원한다. 똑똑하게 보이기를 바라는 것이다. 하지만 그런 욕망이 사람을 지치게 만든다. 완벽하고자 하는 마음이 삶을 피곤하게 만든다. 하나의 얽매인 틀에 스스로를 가둬놓으려 한다. 그 의지가 사람을 괴롭히는 것이다. 때로는 모든 것을 잊어버리는 것이 상책일 때가 있다. 망각의 춤이 허무주의적인 춤이다. 자유로울 때 정신이 건강을 회복한다. 떠날 때 정신이 되돌아온다. 그래서 견딜 수 없는 정신이 선택하는 것은 대부분 여행이다. 익숙함을 낯설음으로 대체해보는 거다.

“이성에 대한 이성의 투쟁”<sup>3)</sup> 혹은 “이성에 대한 이성의 싸움”이 허무주의 철학이다. 하나의 이성에 만족해서는 안 된다. 또 다른 이성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인식할 때까지 이성을 내몰아야 한다. 하나의 틀을 깨야 새로운 틀을 기대할 수 있다. 하나의 정답에 얽매이면 다른 정답을 받아들이 수가 없다. 현상은 다양하다. 그 다양한 현상을 인식할 수 있어야 한다. 색깔을 분류하고 냄새를 나누고 맛을 분별할 수 있어야 한다. 그래야 살맛이 나는 것이다. 그래야 삶이 즐거운 놀이터로 변해주는 것이다. 이성을 회복하기 위해 이성과 싸워야 한다. 이때 이성과 싸워야 할 무기가 있다면 그것 또한 이성뿐이다. 허무주의 철학은 이성의 장인을 기다리고 있다. 이성이라는 무기를 잘 다루는 전사를 기다리고 있다.

자유를 앞에 두고 망설이는 이유는 얽매임이 익숙하고 편하기 때문이다. 자기 자신이 아니면 어쩌나 하는 마음에 떠나지를 못한다. 늘 곁에 있어줘야만 할 것 같은 느낌으로 얽매임을 자처한다. 하지만 그런 상황에서 얽매는 사람도 또 얽매임을 당하는 사람도 모두가 자유로운 삶을 박탈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나 있을까? 자신들이 원하는 삶을 살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과연 알고나 있을까? 옆에서 들려오는 잔소리가 많을수록 정신은 무기력해져만 간다. 말을 하는 자는 자신의 소리가 잔소리가 되지 않도록 주의를 해야 할 것이고, 말을 듣는 자는 지혜가 담긴 소리를 잔소리로 듣지 않도록 조심을 해야 한다. 이성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 인간은 일상 속에서도 이성의 훈련에 매진해야 한다.

쇼펜하우어는 우리가 경험하는 세상이 ‘마야의 베일’<sup>4)</sup>에 싸여 있다고 했다. 그는 현상의 형식을 다양성으로 설명했다. 현상이 너무 다양하여 그 너머를 바라볼 수가 없다는 것이다. 이성은 늘 정답을 요구하고 설명을 필요로 하며 명쾌한 해설을 열망한다. 그런 것을 제시하는 이성은 환영을 받는 반면 사물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려는 이성은 복잡하다는 이유로 꺼린다.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삶의 사관학교”(우상, 77쪽)를 거치지 않고 삶에 들어가고자 한다. 어려운 과정을 밟지 않고 현장에 투입되기를 바란다. 그런 것을 우회로가 아닌 지름길을 찾는 지혜라고 부르면서. 하지만 그 지름길만큼 인생에 위험한 것이 없다는 사실도 모르면서.

2) 책, 31쪽 이후.

3) 재인용, Rüdiger Safranski: Nietzsche. Biographie seines Denkens, Frankfurt am Main 5/2010, 138쪽; “der Kampf mit der Vernunft gegen die Vernunft”.

4) 쇼펜하우어: 의지와 표상으로서의 세계, 위의 책, 416쪽.

“이른바 ‘지름길들’은 항상 인류를 큰 위험에 빠뜨렸다.”(아침, 66쪽) 행복은 “아름다운 옆길”(49쪽)을 통해서만 도달할 수 있다. 니체가 요구하는 독자는 “무조건적이지 않은 자, 도약과 탈선을 좋아하는 자”(비극, 23쪽)이다. 그것이 허무주의 철학의 이념을 실천하는 삶이다.

“불멸이란 / 단지 그대의 비유! / 곤혹스러운 신은 / 시인의 허구...” 첫 번째 연은 부정적이다. 불멸이란 비유에 불과한 것일 뿐 실존이 아니다. 신도 시인이 만들어낸 허구에 지나지 않을 뿐 실존이 아니다. 그런 신이 사람을 곤혹스럽게 만든다. 신과 싸워 이길 수가 없다. 신이 존재한다고 생각하면서부터 이미 싸움은 진 것이 되고 만다. 있지도 않은 신과 싸워야 하기 때문이다. 불멸하는 신 같은 것은 “현실에는 그에 상응하는 것이 없는 실체의 개념”(188쪽)에 불과하다. 말과 싸워야 한다. 끊임없이 변신을 가능하게 하는 말과 싸워야 한다. 이를 두고 니체는 “우리는 그 그림자와도 싸워 이겨야 한다!”(183쪽)고 했던 것이다.

불멸은 없다. 이 세상에 영원한 것은 없다. 영원히 존재하는 것은 없다. 이 세상에 불멸이 있다면 그것은 변화 그 자체이다. 신은 허구이다. 말이 만들어낸 허상이다. 말로만 설명이 가능한 환상이다. 말을 할 줄 아는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최고의 환상이 신이다. 신은 말하자면 믿음으로만 힘을 발휘하는 망상이다. 그런 불멸, 그런 신 따위는 존재하지 않는다. 하지만 인간의 이성엔 끊임없이 영생을 염원하고 임마누엘의 신을 동경한다. 신은 있어야 하고 정답은 존재해야 한다. 이성은 그것을 원한다. 그런 마음이 그런 존재를 만들어내는 원인이 된다. 인간은 “이 머리를 잘라버릴 수는 없다.”(인간적, 30쪽) 인간은 자신의 머리를 통해 사물을 관찰하고 생각한다. 인간은 생각하는 존재다. 생각 속에서 모든 사물은 나름대로 해석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두 사람만 모여도 싸움이 일어난다. 그 두 사람이 사랑을 할 수도 있지만 말이다. 생각이 싸움 혹은 사랑의 갈림길을 선택하게 한다. 그 생각이 만들어내는 것은 실존의 힘보다 우위를 차지한다. 그것이 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간의 힘이다. 그것이 인간을 만물의 영장으로 만들어낸다.

인간의 이성은 분명 이 세상에서 가장 멋진 무기다. 이성 하나로 인간은 모든 것을 해낼 수 있다. 시간 여행도 꿈꾸고 빛보다 빠른 속도를 상상해내기도 한다. 우주를 대표하는 영웅을 만들어내기도 하고 가장 아름다운 여인을 꿈꾸기도 한다. 상상의 나래는 끝을 모른다. 가장 사악한 악마도 생각을 거둬하면서 거의 완벽한 악의 형상으로 만들어진단다. 신도 마찬가지다. 상상이 만들어낸 신의 형상은 그 어떤 것도 범접할 수 없을 정도로 완벽하다. 니체의 허무주의 철학은 이런 내용이 없는 실체의 개념과 싸우고자 한다. 이유 없이 두려움을 유발하는 말들과 싸우고자 한다. 근거 없이 양심의 가책을 가지게 하는 도덕과 맞서고자 한다. 그리고 “싸워 이겨야 한다!”(183쪽) 지면 안 된다. 이겨야만 하는 싸움을 싸워야 한다.

허무주의 철학은 매정하다. 불멸도 신도 부정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니체는 무엇을 바라살아가고 있는 것일까? 그것은 ‘유희’다. 독일어로 슈필 Spiel이라고 한다. 놀이다. 재미난 장난이다. 한마디로 즐거운 학문이다. 놀 수만 있다면 평생을 놀 수 있다. 놀 수 있는 정신만이 다양한 현상에 현혹되지 않게 하고 또 웃고 살게 한다. 놀지 못해 문제일 뿐이다. 놀이의 규칙을 만들어내고 그것을 지키며 살 수 있는 사회가 가장 이상적이다. 이것이 바로 ‘비극의 탄생’을 꿈꾸는 이유다. 이것이 바로 니체가 꿈꾸는 이상향이다.

유희! 놀이! 장난! 삶을 삶답게 만들어주는 최대의 사건이다. 놀기 위해 “세계의 바퀴는 굴러 / 목표와 목표를 스쳐간다 / 고통 - 원한을 품은 자는 그것을 이렇게 부른다”. 세계의 바퀴! 목표와 목표! 목표가 없을 수는 없다. 이성을 활용하여 사는 한 목표는 늘 눈앞에 있을 것이다. 하지만 하나의 목표에 얽매이면 위험해진다. 늘 떠나고 새로운 목표를 향할 준비를 하고 살아야 한다. 그것이 건강한 이성을 만들어줄 것이다. 물은 흘러야 깨끗하고 삶은 살아야 가

치가 있으며 생각은 지속되어야 의미가 있고 사랑은 멈춤이 없어야 아름답다. 누구는 이것을 두고 '변화'라고 말하고 '고통'으로 받아들인다. 감당하기 힘들면 역겹다. "원한을 품은 자"는 세상을 그렇게 부른다. 세상은 고행이라고. 눈물의 바다라고. 생지옥이라고.

원한이 삶을 힘들게 만든다. 잊지 못해 삶이 힘들어지는 것이다. 명심하고 각인시키고 기억 속에 담아둔다. 처음처럼! 변화를 시도하는 것조차 양심의 가책을 느낀다. 늘 같은 사람으로 살려고 한다. '나는 이런 사람이다!'라는 말을 금지로 내뱉는다. 상처를 준 사람에게 복수를! 이런 마음으로 삶을 살아간다. 악의를 품고 시간을 보낸다. 노예적인 삶이다. 복수의 대상이 자기 삶의 주인이기 때문이다. 스스로 쇠사슬에 묶여 있는 삶이다. 가련한 인생이다.

원망하는 마음, 미워하는 마음, 불평하는 마음은 허무주의적 마음이 아니다. 허무주의 철학은 복수의 철학이 아니다. 물론 복수를 해야 할 때도 있다. 하지만 복수를 할 수 없을 때는 깨끗하게 잊을 수도 있어야 한다. 필연적인 것을 인식하면 사랑을 해야 하듯이. 그것을 두고 니체는 운명애라 불렀다.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어야 한다. 허무주의 철학은 '밀물과 썰물의 새로운 법칙'<sup>(69쪽)</sup>이다. 밀물만 원해도 안 되고 썰물에만 집착해도 안 된다. 하나의 마음에 얽매이는 것을 지양해야 한다. 그것이 허무주의적 삶의 지혜다. 목표와 목표를 스쳐 지나갈 줄 알아야 한다. 하나의 목표를 세우고 그것을 향해 최선을 다하고, 되던 안 되던 어느 시점이 되면 그 목표를 넘어서야 한다. 목표들을 넘어서면서 재미가 생겨난다. 그것이 삶의 유희를 만들어낸다. '살고 싶다'는 말을 할 수 있게 해준다. '죽고 싶다'는 말이 아니라.

"광대는 그것을 유희라고 부른다..." 광대의 삶이 최고다. 이것을 과연 독자는 이해나 할까. 잠시 말줄임표에서 머물자. 어릿광대의 표정이 최고다. 웃으면서 사는 게 최고다. 그 누가 그 웃는 얼굴을 역겹다 말할까. 눈물 나는 비극 속에서도 광대의 역할은 웃음뿐이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웃겨야 한다. 스스로를 또 상대방을. 극장 안에 있는 모두를 웃겨야 한다. 이 세상 사람들을 모두 웃겨야 한다. 스스로 웃음 바이러스로 사는 것이다. 웃음의 원인으로 사는 것이다. 이 세상에 재미난 놀이만을 찾아 사는 것이다. 즐거운 놀이를 찾아 모험 여행이라도 떠나야 한다. 재밌지 않다면 그것은 허무주의가 지향하는 삶이 아니다.

"세계의 유희는 위풍당당하게 / 존재와 가상을 뒤섞어놓는다". 장난감도 다양해야 마음이 넉넉해진다. 이런 저런 다양한 놀이를 하면서 인간은 힘든 시간을 보낼 수 있게 된다. 인간은 머리를 자를 수 없다고 했다. 생각하며 살아야 한다. 이성을 활용할 수밖에 없다. 이성 존재와 가상 사이에 놓여 있다. 자기 옆에 앉은 한 사람을 바라보기도 하고 때로는 허공 속에서 신을 바라보기도 한다. 사물을 바라보면서도 이성은 그 사물을 해석해내야 한다는 임무를 띠고 있다. 비가 오면 그 비에 의미를 부여한다. 나쁜 날씨라고. 이런 것이 이성인 하는 일이다. 돌무덤을 높이 쌓아놓고서 그것이 신이라고 생각하고 그 앞에서 절을 하기도 한다. '제발 좀 소원을 이루게 해달라'고 두 손 모아 비는 것이다.

이성이 존재하는 한 가상은 없을 수 없다. 인간은 어쩌면 죽을 때까지 가상과 싸워야 하는지도 모른다. 늘 귀신을 두려워하면서 살아야 한다. 폐가나 폐교에 가면 귀신을 만날까봐 두려워하는 것이 이성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 인간의 가련한 마음이다. 누구는 버려진 거울을 재활용하기를 꺼린다. 먼저 사용하던 사람의 얼굴이라도 보일까봐 두려워하는 것이다. 하지만 두려움의 반대편에는 즐거움이 있다. 당당함이 있다. 건딜 수만 있다면 모든 사물은 장난감으로 변신해준다. 재활용의 지혜는 그때 나타난다. 그곳으로 넘어가야 한다. 마음을 그쪽으로 넘기는 것도 이성이 하는 일이다. 존재와 가상 속에서 삶이 진행될 뿐이다. 그것도 당당하게! 위풍당당하게! 가상에도 좋은 가상이 많다. 비전 같은 것이 좋은 가상에 속한다. 꿈과 희망! 이런 것도 바람직한 가상이다. 인간은 이런 가상 없이 살 수 없다.

이제 우리는 “이 현상 세계의 한가운데에는 소생한 개체화의 세계를 삶 속에 붙잡아두기 위하여 새로운 미화의 가상이 필요하게 된다”(비극, 178쪽)나 “우리가 불협화음의 인간화를 생각할 수 있다면 - 그리고 만약 그렇지 않다면 인간이란 도대체 무엇이겠는가? - 이 불협화음은 살 수 있기 위하여 훌륭한 환상을 필요로 할 것이다”(같은 곳) 등의 주장들을 이해하게 된다. 삶을 미화해주는 가상은 반드시 필요하다. 그런 가상이 삶을 살만 하게 해주기 때문이다. 그런 가상이 불협화음 속에서 ‘죽고 싶다’는 말을 ‘살고 싶다’로 바꿔놓게 한다. 이성을 이런 쪽으로 생각할 수 있도록 지혜롭게 이용해야 한다.

“영원한 어릿광대가 / 우리를 뒤섞어놓는다 - 그 안으로!” ‘존재와 가상’이 뒤섞여 있는 곳으로. 그림자도 놀이의 상대가 되면 즐겁다. 두려워하면 놀 수가 없다. 시간을 견딜 수가 없다. 하지만 그림자도 친구가 되면 하루 종일 놀 수가 있다. 놀면 된다. 하루가 즐겁고 이틀이 즐겁다. 그런 날들이 모이면 인생이 즐겁다. 떠남이 남겨준 상처는 아무것도 아니었던 그림자의 존재와 함께 건강을 회복한다. 즐겁다는 생각만큼 유용한 것이 또 없다. 삶은 그런 생각으로 인해 가치를 부여받게 되는 것이다.

니체는 괴테에게 한 편의 시로 화답을 했다. 괴테의 글을 읽고 만들어낸 시라고 볼 수 있다. 윤통주의 시를 읽고 그 감정 속에서 하나의 시를 써보는 그런 기분이다. 괴테에게 저항하거나 반대되는 글을 써놓은 것이 결코 아니다. 목표에서 목표로 스쳐지나가듯이 그렇게 시의 감정은 니체에게 도달했고 그는 그 감정 속에서 또 다른 시를 만들어냈을 뿐이다. 행복한 감정에서 또 당당함이라는 느낌으로. 그 안에서 또 그 안으로. 삶 속에서 또 삶 속으로, 이것이 허무주의가 지향하는 것이다.

## 2. 시인과 철학자 사이에서

철학자는 노래를 부르고 싶었다. 노래로 불러질 수 있는 책을 쓰고 싶었다. 《즐거운 학문》 앞에 붙여놓은 《메시나에서의 전원시》에 〈새의 판결〉이라는 시가 있었다. 거기서 니체는 시를 짓고 있는 철학자의 자기비판을 소재로 다뤘다. 그 분위기가 다시 반복된다. 이번에는 좀 더 긴 호흡으로 이어진다. 6연으로 이루어진 시다. 세 번째 연부터 새롭게 추가되었다. 서두르지 말고 천천히 읽어보자. 그러면서 시를 쓰고 있는 자유정신이 어떤 비판의식으로 자기 자신을 바라보고 있는지 추적해보자.

### 시인의 소명

예전 언젠가 휴식을 취하려  
나무 그늘 아래 앉았을 때  
나는 들었네, 나지막이 똑딱거리는 소리를  
장단을 맞추듯 우아한 소리였지  
화가 나서 얼굴을 찌푸리다가  
마침내 마음을 돌려  
심지어 스스로도 시인처럼  
똑딱 장단에 맞춰 말하게 되었지.

이렇게 시구를 만들어 가며  
한 구절, 한 구절마다 네 장단과 함께 뛰어 노노라니  
갑자기 웃음이 터져, 웃고 또 웃었지  
15분간이나  
네가 시인이라고? 네가 시인이라고?  
네 머리가 그리도 멍청하단 말이니?  
- "네, 그래요! 당신은 시인이랍니다,"  
어깨를 움찔하며 딱따구리가 말했지

이 숲 속에서 나는 누구를 기다리고 있는 걸까?  
강도처럼 매복하여 누구를 노리고 있는 걸까?  
격언을? 형상을? 재빨리  
내가 붙인 각운이 그 뒤에 자리를 잡지  
미끄러지고 뛰노는 것을 날새게  
시인은 시구로 붙잡지  
- "네, 그래요! 당신은 시인이랍니다,"  
어깨를 움찔하며 딱따구리가 말했지

각운은 화살 같다고나 할까?  
화살이 도마뱀 몸통의  
고귀한 곳을 꿰뚫을 때  
그 버둥대고, 부르르 떨고, 뛰어오르는 모습이러니!  
아, 죽어가고 있구나, 너희 가엾은 녀석들  
술 취한 것처럼 비틀거리며!  
- "네, 그래요! 당신은 시인이랍니다,"  
어깨를 움찔하며 딱따구리가 말했지

서투른 격언들이 급히 서두르고  
술 취한 단어들이 몰려든다!  
너희들 모두가 한 줄 한 줄  
똑딱 박자의 사슬에 매달릴 때까지  
이것을 즐기는 잔인한 패거리  
시인은 고약한 자들일까?  
- "네, 그래요! 당신은 시인이랍니다,"  
어깨를 움찔하며 딱따구리가 말했지

새여, 비웃고 있는가, 농담을 던지고 싶은가?  
내 머리가 괴롭다면  
내 심장은 더 괴롭지 않을까?  
두려워해라, 내 분노를 두려워해라!  
하지만 시인은 분노 속에서도

각운을 이리저리 엮어내지

- “네, 그래요! 당신은 시인이랍니다.”

어깨를 움찔하며 딱따구리가 말했지 (400쪽 이후)

〈시인의 소명〉! 시의 제목이다. 시인은 시를 짓는 것이 직업이다. 그런데 그 직업이 쉽게 느껴질 때 천재는 양심의 가책을 느낀다. “인생은 살기 어렵다는데 / 시가 이렇게 쉽게 씌어지는 것은 / 부끄러운 일이다”<sup>5)</sup>라고 고백한 윤동주의 양심처럼. 시는 참 힘들다. 몇 줄 안 되는 간단한 문장들이지만 그것을 만들어내기까지 수많은 과정을 밟아야 한다. 각운도 맞아야 하고 리듬도 맞아야 하고 일단 겉으로 드러난 형식들이 다 맞아야 한다. 수학 공식처럼 정해진 틀 속에서 자유정신이 활동해야 한다. 정해진 길 위에서 자유로운 춤을 춰야 한다. 일정하게 배열된 건반을 두들기면서도 아름다운 선율이 흘러나와 줘야 하듯이.

시인의 말은 남다르다. 흔치 않은 말이다. 일상어와는 다르다. 일상생활 속에 시어가 끼어들면 당황스럽다. 밤하늘의 달을 보고 그냥 달이라 하면 될 것을 ‘어둠 속의 눈동자’라고 말하면 대화가 잠시 멈추게 된다. 이런 식으로 남들이 사용하지 않는 말을 만들어내야 하는 것이 시인의 일인지라 그는 늘 일상과는 동떨어진 먼 곳에 있는 듯하다. 〈새의 판결〉 때와 똑같은 상황이 이어진다. 새처럼 훨훨 날아다니다가 쉬고 싶어 내려앉는다. “예전 언젠가 휴식을 취하려 / 나무 그늘 아래 앉았을 때 / 나는 들었네, 나지막이 똑딱거리는 소리를 / 장단을 맞추듯 우아한 소리였지 / 화가 나서 얼굴을 찌푸리다가 / 마침내 마음을 돌려 / 심지어 스스로도 시인처럼 / 똑딱 장단에 맞춰 말하게 되었지”.

귀에 거슬렸다. 망치질 소리 같다. 새가 들려주는 똑딱 장단은 우아한 소리이긴 했지만 화가 나서 얼굴을 찌푸리게 하는 소리였다. 듣기 싫은 소리! 불협화음이 이어진다. 그런데 마음을 바꿔 따라 해보기로 작정한다. 시인처럼 말해보기로 한 것이다. 똑딱 장단에 맞춰 시인을 흉내내고 있었다. “이렇게 시구를 만들어 가며 / 한 구절, 한 구절마다 네 장단과 함께 뛰어 노노라니 / 갑자기 웃음이 터져, 웃고 또 웃었지 / 15분간이나”. 얼마나 같았을까. 얼마나 가소로웠을까. 얼마나 부끄러웠을까. 모방은 시인의 일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나는 그 누구도, 그 무엇도 모방하지 않으며 / 내 집에 기거하노라.”<sup>(21쪽)</sup> 이것이 니체의 모토가 아니었던가. 새가 들려주는 똑딱 장단에 맞춰 시인을 흉내내고 있는 자신의 모습이 얼마나 웃겼을까. 너무 창피하여 쥐구멍이라도 찾아들어갈 기분이었을 것이다.

그래서 쏟아지는 내면의 소리를 막을 수 없다. “네가 시인이라고? 네가 시인이라고? / 네 머리가 그리도 멍청하단 말이니?” 귀를 막아도 들려오는 소리 같다. 눈을 감아도 찌를 듯이 다가서는 칼끝 같다. 양심의 소리다. 자기 자신을 속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자기 자신을 향한 혐오가 극에 달하는 기분이다. 그때 똑딱 장단에 맞춰 읊어지는 후렴구가 들려온다. “- ‘네, 그래요! 당신은 시인이랍니다.’ / 어깨를 움찔하며 딱따구리가 말했지”. 딱따구리가 들려주는 똑딱 장단이 음절로 나뉘어 알아들을 수 있는 소리로 들린다. 이 또한 양심의 소리인 것이다. 자기 자신이 만든 소리가 그렇게 들려오는 것이다.

사실 여기까지는 〈새의 판결〉과 똑같다. 반복된 상황이다. 마치 바퀴가 굴러가듯이 처음에 언급되었던 것이 다시 반복되고 있다. 똑같은 시를 다시 읽게 된다. 하지만 이번에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계속 이어진다. 3연이다. “이 숲 속에서 나는 누구를 기다리고 있는 걸까? / 강도처럼 매복하여 누구를 노리고 있는 걸까? / 격언을? 형상을? 재빨리 / 내가 붙인 각운이 그 뒤에 자리를 잡지 / 미끄러지고 뛰노는 것을 날새게 / 시인은 시구로 붙잡지”. 시인은 강

5) :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 위의 책, 125쪽.



도처럼 숨어 있다가 숲 속에서 뛰노는 것을 잡아챈다. 그것도 재빨리! 날쌔게! 숲 속에서 뛰노는 것은 격언도 되고 형상도 된다. 시인은 자연 속에서 격언이 되었던 형상이 되었던 상관하지 않고 낚아챈다. 그는 그것을 각운에 맞춰놓고 시구로 만들어낸다.

시인은 숲 속에서 자유롭게 놀고 있는 사물들을 언어라는 틀 속에 가둬놓는다. 자연 속의 사물에게서 자유를 앗아간다. 자유를 빼앗긴 사물은 시인의 언어 속에서 의미라는 옷을 입고 견뎌내야 한다. 그 의미가 벗겨질 때까지.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 주기 전에는 / 그는 다만 /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 주었을 때 / 그는 나에게로 와서 / 꽃이 되었다”<sup>6)</sup>고 말하는 시인의 말처럼 사물은 이름과 함께 의미 있는 존재가 되기도 하지만 그 의미와 함께 사물은 하나의 틀 속에 갇히고 마는 존재가 되기도 한다. 말을 찾아야 할 때도 있지만 말을 버려야 할 때도 있다. 기억을 더듬어야 할 때도 있지만 망각에 손을 뻗어야 할 때도 있다. 생각은 늘 구속과 자유를 반복하며 모습을 바꾼다.

시인은 말과 함께 새로운 세계를 만들어내기도 하지만 시인의 그 행위는 사물을 죽일 때도 있다. “각운은 화살 같다고나 할까? / 화살이 도마뱀 몸통의 / 고귀한 곳을 꿰뚫을 때 / 그 버둥대고, 부르르 떨고, 뛰어오르는 모습이라니! / 아, 죽어가고 있구나, 너희 가엾은 녀석들 / 술 취한 것처럼 비틀거리며!” 사물이 죽어가고 있다. 각운의 화살을 맞고 바르르 떨고 있는 사물. 얼마나 아플까. 바르르 떨고 있는 마지막 움직임. 최후의 발악이라고 할까. 시인의 각운과 시구가 사물을 죽이고 있다. 그것들이 화살이 되어 사물의 심장을 뚫고 있다. 시인의 말이 가엾은 자연 속의 사물들을 죽이고 있다. 화살에 꽃혀 술 취한 것처럼 비틀거리며 쓰러진다. 15분간이나 웃고 나서 들려오는 양심의 쓴소리가 귓가에 맴돈다. 네가 그러고도 시인이라고 말할 수 있겠니? 사물을 살려내기는커녕 잔인하게 죽이고 있으면서도 네가 시인이라고 말할 수 있겠니? 말 좀 해봐라! 입이 있으면 대꾸라도 좀 해봐라! 하고.

서투른 시인이 잔인하다.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고 한다. 대충 배운 학자가 폭력적이다. 마구 던지는 말의 화살이 사물을 죽인다. 피 흘리는 상처를 바라보며 쾌감을 느낄 정도로 잔인하다. 기쁨을 함께 하기보다는 고통을 함께 하는 데 익숙한 정신이다. 잔인한 정신이 느끼는 기쁨은 한쪽의 희생을 요구한다. “무는 뱀은 우리에게 고통을 주었다고 생각하며 기뻐한다.”(인간적Ⅱ, 53쪽) 어정쩡한 시인은 타인의 눈물로 축배를 든다.

“서투른 격언들이 급히 서두르고 / 술 취한 단어들이 몰려든다! / 너희들 모두가 한 줄 한 줄 / 똑딱 박자의 사슬에 매달릴 때까지 / 이것을 즐기는 잔인한 패거리 / 시인은 고약한 자들일까?” 급히 서둘러서 내뱉은 말이 화살이 된다. 아무 생각 없이 던진 말이 회복 불가능한 상처를 남긴다. 어설픈 말 한마디가 소중한 인연을 끊어버린다. 그런 말들이 서투른 격언들을 쏟아내고 술 취한 단어들을 나열한다. 술을 먹어야 시가 쓰여진다는 허튼 소리로 변명 아닌 변명을 쏟아낸다. 똑딱 박자의 사슬에 매달릴 때까지 잔인한 놀이는 계속된다. 숲 속에서 뛰놀고 있던 사물들을 억지로 끌어들여 사슬에 엮어놓는다. 자유를 앗아간다. 그것을 예술이라고 떠벌린다. 그것을 창조라 주장한다. 잔인한 패거리, 고약한 자들, 이것이 어정쩡한 시인의 이름이다. 사물들을 자기 뜻으로 왜곡하는 자들이다.

이제 마지막 연이다. “새여, 비웃고 있는가, 농담을 던지고 싶은가? / 내 머리가 괴롭다면 / 내 심장은 더 괴롭지 않을까? / 두려워해라, 내 분노를 두려워해라! / 하지만 시인은 분노 속에서도 / 각운을 이리저리 엮어내지”. 그래도 시인이다. 포기하지 않는다. 손가락 들 힘만 있어도 욕정을 불태우는 존재가 인간이다. 노래하고 싶어 하는 철학자는 시를 포기할 수가 없는 것이다. 머리가 아프다. 하지만 그 전에 심장이 더 아팠다. 고통은 머리까지 와서야 인

6) :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시인생각 2/2014, 14쪽.

식되었을 뿐이다. 이성을 가진 인간이 저지르는 가장 일반적인 실수다. 고통은 심장에서 벌써 신호를 주고 있다. 그것을 보지도 듣지도 못하고 사는 것이다.

하지만 노래하고 싶어 하는 철학자는 역습의 기회를 엿보고 있다. 자기 자신에 대한 역습이다. 자기 자신에 대한 잔인한 복수를 준비한다. 이대로 그냥 당하고만 있지 않겠다는 것이다. “두려워해라, 내 분노를 두려워해라!” 선전포고다. 지금은 똑딱 장단에 맞춰 딱따구리의 흥내를 내며 시인이랍시고 가소롭게 떠벌리고 있지만 언젠가는 사물을 살려내는 위대한 언어로 역습을 하겠다는 것이다. “육체여, 너는 떨고 있는가?”<sup>(317쪽)</sup> 각오하라! 어떤 공격을 받을지 알고 나면 더 떨게 될 테니. 건강을 회복한 철학자는 분노 속에서도 각운을 이리저리 끌고 다닌다. 가슴 아픈 이야기를 쏟아낸 것에 대한 복수의 밀물은 서서히 힘을 축적한다.

복수의 의지는 고귀하다. 사물의 편에 선 의지는 신성하다. 필연적인 것은 아름답다고 말해야 한다. 운명은 사랑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가르쳤다. 허무주의 철학이 지향하는 의지는 삶의 의지다. “이것들은 힘에의 의지를 따르고 있으며, 이 힘에의 의지가 바로 삶의 의지이다.”<sup>(334쪽)</sup> 삶과 힘을 위한 공격에의 의지는 성스럽다. 선한 싸움이다. 피할 수 없는 싸움이다. 운명적 전쟁이다. 명예가 걸린 전쟁이다.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다. 자기 자신과의 전쟁이다. 자기 자신을 속일 수 없기에 가장 힘든 싸움이 될 것이다. 정면승부밖에 없다. 전략도 작전도 필요 없다. 자기 자신과의 싸움에서는 처절한 맞대응밖에 다른 방법이 없다. 자신을 사슬에 얹어매고 장인이 될 때까지 연습에 연습을 거듭해야 한다. ‘위봉 마흐트 마이스터 Übung macht Meister’, ‘연습이 대가를 만든다’는 말이 있다. 대가는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이 아니다. 대가는 훈련을 통해 만들어질 뿐이다.

### 3. 자유정신의 진심어린 사랑 선언

허무주의 철학자 니체도 사랑하는 것이 있다. 사실 허무와 사랑은 모순 관계다. 서로 어울릴 수 없는 개념이다. 하지만 그 대립구조를 밀물과 썰물처럼 가지고 놀 수 있어야 한다. 다시 말한다. 허무주의 철학자 니체도 사랑하는 것이 있다. 원하는 것이 있다. 그것은 무엇보다도 자유다. 《비극의 탄생》 표지 모델로 쇠사슬을 끊고 먼 하늘을 바라보고 있는 프로메테우스를 선택한 것도 바로 이런 이유에서였을 것이다. <시인의 소명>이라는 시에서 니체는 사물을 각운에 꿰놓고 시구로 붙잡는 일을 시인의 일이라고 했다. 하지만 그 각운이 사물을 죽인다고 고백했다. 서투른 격언과 술 취한 단어들을 남발하는 시인답지 못한 시인이라고 고백했다. 시를 쓰고 싶은 마음은 굴뚝같은데 모든 것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 아직 훈련이 덜 된 탓이다. 아직 미숙한 점이 너무도 많다. 자유는 너무도 요원하다.

그리고 몇 개의 시를 건너 뛰어 <사랑의 선언>을 읽어보기로 하자. 시인의 마음이 읽혀지는 시다. 물론 이 시도 앞부분에서 <알바트로스>라는 제목으로 이미 언급이 되었던 시다. 이번에는 두 번째 연을 삭제하고 세 개의 연으로만 구성해놓았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판단했나 보다. 남아 있는 말들은 모두 다 똑같다. 달라진 것이 있다면 제목 부분이다. <알바트로스> 대신 <사랑의 선언>을 선택했다. 좀더 내용적으로 제목을 선택한 것이다. 시인의 사랑고백이다. 진심이 담긴 사랑고백이다. 그리고 시행의 배열방식도 조금 달라졌다. 늘 첫 번째 행을 조금씩 뒤로 물러서게 했다. 웬지 호흡이 더 느려지는 기분이다. 한 박자 쉬었다가 시작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 사랑의 선언

(하지만 그 순간 시인은 구덩이에 빠졌다 -)

오, 놀라워라! 아직도 날고 있는가?  
하늘로 솟아오르면서도 날개는 쉬고 있다니!  
무엇이 그를 떠받쳐주는 것일까?  
무엇이 그의 목표이며 향로이며 고배인가?

별처럼, 영원처럼 이제 그는  
삶이 갈망하는 저 높은 곳에서 살고 있다  
질투조차 동정하면서 -  
그가 나는 것만 보아도 높은 곳에 이르리라!

오, 알바트로스여!  
영원한 충동이 나를 높은 곳에 이르게 하노라!  
너를 생각하면, 흘러내리는 눈물  
그리고 또 눈물, - 아, 나는 그대를 사랑하노라! (407쪽)

“아, 나는 그대를 사랑하노라!” 눈물을 흘리며 사랑을 고백한다. 사랑을 선언한다. 사랑으로 충만한 마음으로 쏟아내는 사랑타령이다. 얼마나 행복할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성 때문에 이런 사랑을 제대로 해보지도 못하고 청춘을 다 보낼 때가 많다. 사랑을 하면서도 두 눈을 똑바로 뜨고 정신을 차리고 있다.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있는 것이다. 선악을 넘어설 기색이 없다. 사랑은 늘 선악의 저편에서만 일어나건만 그 선을 넘을 생각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정신줄을 놓치면 무슨 엄청난 일이라도 벌어질 것 같은 두려움 때문에 그런 거다. 낮은 감정이 두려워서 그런 거다. 미칠 것만 같은 그 마음이 무서워서 그런 거다.

늘 하라는 대로만 살아왔다. 말 잘 듣는 사람이 되어 어른이 되었다. 그런 사람이 청춘을 대할 때 질투를 느낀다. 젊음 자체가 아니꼽다. 젊어서 재수가 없다. 자신의 늙은 모습이 기분 나쁘다. 상실감이 질투심을 부추긴다. 이런 사람에게 “아, 나는 그대를 사랑하노라!”라는 고백이 원혀질까. 사랑이라는 말을 하면서도 이기심으로 일관하는 사람이? 모든 것을 내려놓고 허무에 몸을 맡길 수 있을까? 니체를 제대로 읽어낼 수 있을까? 아직도 니체가 마련해놓은 밀물과 썰물을 제대로 탈 수 없다면 서두르지 말고 좀더 참으며 노력해야 한다. 니체가 던져준 음식을 꼭꼭 씹어 먹어야 한다. 그가 남겨놓은 텍스트를 한 줄 한 줄 천천히 읽어 나가야 한다. 그는 그냥 읽혀지기만을 원하지 않았다. 외워달라고까지 요구했다. 그런 독서로 임해야 한다. 그가 요구하는 “올바른 독서의 미덕”(394쪽)을 받아들여보자.

제목 〈사랑의 선언〉 밑에 괄호를 만들어 문장을 하나 적어놓았다. “하지만 그 순간 시인은 구덩이에 빠졌다 -”고. 이 또한 모순이다. 사랑에 실패한 자가 사랑을 고백하고 있다. 이것을 어떻게 읽어내야 할까? 사랑을 인식하고 사랑을 고백하는 자가 바로 실패의 쓴 맛을 보고 있다는 것이다. 모순이 읽혀지는가? 그렇다면 독서를 계속해보자. 실수의 덫에 걸려 있다는 얘기를 계속해서 읽어보자. 시인의 정신은 자유롭게 못한 상황에 처해 있다. 구덩이에 빠졌기 때문이다. 그냥 땅바닥 쓰러진 것도 아닌 구덩이에 빠진 정신이 쏟아내는 고통스런 고백이다. 비상? 비상은 꿈도 못 꾸다. 격이 다르다. 한쪽은 새가 되어 날고 있고 그 새를 바라

보며 다른 쪽에서 사랑을 고백하고 있다. 위와 아래로 영역이 나뉘고 있다.

시인의 시선은 하늘을 날고 있는 새를 바라보고 있다. “오, 놀라워라! 아직도 날고 있는가?” 얼마나 부러웠을까. 날개를 가진 존재에 대한 동경은 얼마나 컸을까. 자유롭게 하늘을 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부러웠을까. 그것도 “하늘로 솟아오르면서도 날개는 쉬고 있다니!” 힘들 이지 않고 날고 있다. 날갯짓은 없다. 그런데도 하늘 높이 솟아오르고 있는 것이다. 그 어떤 얽매임도 확인되지 않는다. 이것이 바로 새의 비상이다. 얼마나 행복한 운명인가. 하지만 시인 자신은 구렁이에 빠져 있다. 마치 “오, 한때 자신을 자유롭다고 느끼다가 이제 새장의 벽에 몸을 부딪고 있는 새여!”<sup>(199쪽)</sup>하며 아픔을 토로하는 듯하다. 고통스럽다. 모든 것이 발목을 잡고 있는 듯한 기분이다. 무엇을 해도 안 되는 절망감만이 느껴질 뿐이다.

그런데 새는 높이 날고 있다. 그것도 날갯짓도 하지 않고서. “무엇이 그를 떠받쳐주는 것일까?” 아주 중요한 질문이다. 행복한 사람을 만나면 우리는 이렇게 질문해야 한다. ‘무엇이 이 사람을 웃게 하고 있는가?’하고. “무엇이 그의 목표이며, 향로이며, 고삐인가?” 새를 허공 속에 ‘떠받쳐주는 것’이 분명히 있다. 비상을 가능하게 해주는 ‘목표’와 ‘향로’ 그리고 ‘고삐’를 이해해야 한다. 그런 것은 현상의 논리를 벗어난 것이다. 목표, 향로, 고삐에 얽매여 구렁이에 빠진 시인은 자신이 경험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운명적 힘을 추궁하고 있다.

“별처럼, 영원처럼 이제 그는 / 삶이 갈망하는 저 높은 곳에서 살고 있다 / 질투조차 동정하면서 - / 그가 나는 것만 보아도 높은 곳에 이르리라!” 높은 곳! 시인이 도달하고자 하는 곳이다. 별처럼 영원처럼 높이 오르고 싶다. 높이 나는 새를 바라보면서 그 새의 시선을 따라 간다. 비상하는 것만 보고서도 높은 곳에 이르는 방식이다. 이것이 인식의 경지다. 깨달음의 경지다. 시간과 공간에 얽매이지 않는 인식의 시선이다. 눈을 감으며 뜨는 눈이다. 귀를 막으며 여는 귀다. 고독 속에서는 모든 것이 다르게 보이고 다르게 들린다.

“오, 알바트로스여! / 영원한 충동이 나를 높은 곳에 이르게 하노라! / 너를 생각하면, 흘러 내리는 눈물 / 그리고 또 눈물, - 아, 나는 그대를 사랑하노라!” <알바트로스>와 비교해보면 마지막 행에서 눈물 다음에 콧마가 더 찍혀 있다. 사이가 좀더 넓어진 듯하다. 그만큼 더 느리게 읽혀진다. 더 느려진 속도가 읽혀져야 한다. 느리다. 눈물을 쏟아내는 시간이 더 허락된 것이다. 그 순간 인식의 대상으로 들어오는 알바트로스는 느린 음악처럼 하늘을 날고 있다. 더 이상 바람의 속도는 느껴지지 않는다. 현상은 의미를 상실하고 만다. 이제 본질만이 인식의 대상으로 남는다. ‘인식만이 남아 있는 순간’<sup>7)</sup>이기도 하다. 그 바람 속에서 머물러 있는 정신만이 느껴질 뿐이다.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정신이다.

영원한 충동! 삶은 늘 새롭게 시작을 해야 한다. 구렁이에 빠진 정신은 높은 곳을 염원한다. 물론 높이 날고 있을 때는 또 다시 대지를 사랑의 대상으로 삼는 정신이다. “지상의 신을 찬양하라!”<sup>(405쪽)</sup> 돌고 돈다. 이런 사상에 대한 이름으로 훗날 니체는 “영원회귀 사유”<sup>(이 사람, 419쪽)</sup>라는 개념을 만들어낸다. 모든 것이 다시 시작한다. 말 그대로 돌고 돈다. 《즐거운 학문》 자체도 돌고 돈다. 시에서 시작하여 시로 끝난다. 하지만 이것조차 끝이 아니다. 시작은 또 다시 높은 파도를 형성하며 밀려오고 있다. 비상과 몰락은 거듭되어야 한다. 그것이 밀물과 썰물의 새로운 법칙이다. 그것이 허무주의가 지향하는 바다. 대양이 곁에 있다. 이런 느낌으로 삶에 임해야 한다. 항해를 떠나는 기분으로 하루를 받아들여야 한다.

시를 다 읽고 나면 <사랑의 선언>에서는 왜 <알바트로스>에 있었던 두 번째 연이 사라졌을

7) 해탈의 경지에 도달한 정신이 내뿜을 수 있는 말로 “인식이 생기자마자 욕망은 사라져 버렸다” ( : 의지와 표상으로서의 세계, 위의 책, 440쪽)는 문장을 인용했다. 바꿔 말하면 욕망의 불이 꺼졌을 때 마침내 인식이 생겨난다는 뜻이기도 하다. 깨달음의 경지다.

까를 고민해볼 수도 있다. 누구는 그 두 번째 연이 '서툴러서!'라는 의혹을 제기한다. 예를 들어 니체가 바그너를 비난했다고 해서 바그너를 곱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보는 그런 꼴이다. 그런 유치한 해석은 지양하자. 그때는 그럴만한 이유가 있었을 것이고 또 지금은 그래야만 했던 이유가 있었을 것이다. 그것을 추궁하는 자세로 독서에 임하면 된다. <알바트로스>가 새의 존재에 집중했다면 <사랑의 선언>에서는 비상하고 있는 존재에 대한 시적 자아의 사랑고백이 우선이 되고 있을 뿐이다. 입장이 바뀐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두 번째 연은 필요 없어졌을 뿐이다.

또 누구는 사랑에 실패한 니체의 사생활을 해석에 끌어들이기도 한다. 물론 틀린 말은 아니다. 지극히 신빙성이 있는 추측이다. 살로메와의 관계가 끊기고 "거의 완전한 격리상황에서 자살을 생각하는"<sup>8)</sup> 위기의 철학자가 생명줄로 선택한 것이 시라고. 하늘을 날고 있는 새의 비상에서 사랑의 대상을 새롭게 인식한다. 현재의 사랑이 과거의 사랑을 압도한다. 가슴 아픈 고백이다. 기억과 망각이 맞물린다. 한계에 도달한 정신이 직면한 위기의 순간이다. 죽음을 생각하게 했던 충동이 삶을 생각하는 충동과 맞선다. 한 발자국만 더 가면 죽음이다. 그 한 발자국을 막고 서는 삶의 의지가 허무주의적이다. 희망을 거부하고 희망을 쟁취한다. 눈물과 함께하는 망각의 축제다. '내 안에 이제 너는 없다!' 너의 존재는 사라졌다. 죽음을 향해 있던 몸을 돌렸다. 구덩이에 빠져 있는 몸을 다시 일으켜 세운다. 그 어떤 양심의 가책도 느끼지 않는다. 새로운 사랑의 선언에서 시인은 당당하다. 눈물이 앞을 가리지만 이제는 비상하는 알바트로스만을 응시할 뿐이다. 삶을 선택한 그의 양심에 거리낌은 없다.

하지만 이런 해석에 너무 매달리지 않도록 하자. 《즐거운 학문》의 초판은 1882년 8월 한여름에 출판된다. 그리고 살로메와의 마지막 만남은 10월이었고 완전한 결별은 1882년에서 1883년으로 넘어가던 겨울이었다. 물론 이별의 기미가 겨울 이전에 있었을 수는 있다. 아니면 1887년 수정본이 나올 때 이 시가 추가되었으니 충분히 그럴 수 있다. 이런 뒷조사를 할 시간에 니체가 남겨놓은 텍스트에 좀더 공을 들이자. 문제집을 풀 때 뒤쪽에 있는 답을 먼저 확인하고 나면 문제의 매력이 현격하게 떨어지고 만다. 그리고 '답을 안다'고 또 '이해했다'고 착각을 할 때가 많다. '아~ 그런 거였구나!'하고 더 이상 의혹을 제기하지 않는다. 하지만 그것은 진정한 공부다 아니다. 게다가 철학은 더더욱 아니다. 철학자는 자기 안에서 오류들이 끊임없이 싸우는 존재라고 했다. "사상가란 진리의 충동이 생명을 보존하는 힘이라는 것이 입증된 이후에도 여전히 진리에의 충동과 생명을 보존케 하는 오류가 그의 안에서 서로 투쟁을 벌이는 존재를 의미한다."<sup>(187쪽)</sup> 살아 있는 동안 늘 묻게 되는 것이 진리에의 충동과 생명이다. 하나의 유권적 해석은 없다. 완벽한 해석 같은 것은 없다. 늘 조금씩 성장하는 나무처럼 해석 또한 세대를 거듭하면서 조금씩 성장하게 될 뿐이다.



황금을 찾아가는 인간 행렬.  
1898년.

#### 4. 정신건강을 위한 허무주의적 자기 치료

세상이 너무 이성적이다. 모든 사람들이 그 이성을 따르기 때문이다. 모두가 너무 이성적이어서 문제가 많은 세상이다. 어느 하나가 대세를 이루며 유행을 만들어낸다. 모든 사람들이 한 방향으로 나아간다. 마치 황금을 찾아나서는 재미때 같다. 그것을 두고 교양인이라고 말하며 양심을 형성한다. 대세를 따르며 양심의 가책조차 느끼지 않는다. 자기를 버리며 양심의 거리낌이 없다. '공부를 열심히 한다'는 마음으로 스스로를 위로하며 삶에 임한다.

8) [https://de.wikipedia.org/wiki/Friedrich\\_Nietzsche](https://de.wikipedia.org/wiki/Friedrich_Nietzsche)

이성이 병들었다. 정신이 질병으로 고생을 하고 있다. 모두가 힐링을 원한다. 치료가 언급되는 곳에 사람들이 몰린다. 돈을 주고서라도 배우고자 한다. 현대의 현상이다. 고대에는 수사학을 배우고자 했고 중세에는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자 했고 근대는 지식을 배우고자 했고 바로크 시대에는 춤을 배우고자 했듯이, 이제 시대는 흘러 힐링의 시대가 도래했다. 뭔가 문제는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른다. 자기 자신의 일인데도 무기력하기만 하다. 점쟁이에게 운명을 묻듯이 의사에게 건강을 맡긴다. 뭐든지 돈으로 해결하려 한다. 위험천만한 시대가 된 것이다. 목숨을 담보로 한 위기의 삶이다. 자기 자신의 삶에서 자기 자신이 주인 행세를 못한다. 이런 문제가 인식되었다면 다음의 시가 재밌게 읽혀질 것이다.

### 치료의 시

혹은: 병든 시인이 자신을 위로하는 방법

너 침 흘리는 마녀의 시간이며  
네 입에서  
천천히 시간의 물방울이 방울져 떨어져 내린다  
헛되이 내 모든 혐오감이 소리친다  
"저주를 받아라  
영원의 목구멍이여!"

세계는 - 청동 광석  
절규를 듣지 못하는 - 불타는 황소  
날개 달린 비수를 지닌 고통이  
내 뼈를 파고든다  
"세계에는 심장이 없나니  
그것을 슬퍼하는 자는 어리석도다!"

쏟아 부어라 모든 아편을  
내 뇌수에 독을 쏟아 부어라, 열병이여!  
이미 오랫동안 너는 내 손과 이마를 시험했노라  
무엇을 더 물으려는가? 무엇을? "얼마나 큰 - 대가를 바라는가?"  
- - 아아, 이 매춘부에게  
그녀의 경멸에 저주 있으라!

아니다! 돌아오라!  
밖은 차고, 빗소리가 들려온다  
좀더 부드럽게 너를 맞아야 하는가?  
- 받아라! 여기 황금이 있으니! 그 얼마나 찬란하게 빛나고 있는가! -  
너를 "행복"이라 부를까?  
너 열병을 축복해야 할까? -

문이 활짝 열린다!

비가 침대에 들이친다!  
 바람이 등불을 꺼트린다 - 쏟아지는 재난!  
 - 지금 백 개의 각운을 지니지 못한 자는  
 내기를 걸고 단언건대  
 죽음을 맞으리라! (411쪽 이후)

바로크적이다. “죽을 거야, 아마도가 아니라 확실하게! 언제 죽을지도 확실하지 않고, 어떻게 죽을지도 확실하지 않으며, 어디서 죽을지도 확실하지 않지만, 그러나 죽는다는 것은 확실하다네”<sup>9)</sup>라는 구절이 떠오른다. 허무하다. “죽음을 맞으리라!” 니체의 말은 허무함의 극단을 보여준다. 하지만 니체의 허무주의는 바로크적으로 무작정 허무함을 느끼는 것은 아니다. 그 가운데서도 희망을 남겨놓는다. 허무한 죽음을 맞이하지 않을 수 있는 비결이 있다는 것이다. 니체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처음부터 차근차근 읽어보자.

시의 제목은 <치료의 시>라고 한다. 질병을 전제로 하는 제목이다. 인생을 고통이나 질병으로 바라보는 것에 대한 해결책이라고 할까. 어쨌든 니체는 그런 인식에 저항한다. 그런 정신을 치료하고자 한다. 그리고 부제가 달려 있다. “혹은: 병든 시인이 자신을 위로하는 방법”이라고. 자신이 병들었다고 판단되는 자가 자신을 위로하고 치료하는 방법을 시로 표현해냈다는 얘기다. 병든 자가 어떻게 자신을 위로해야 할까? 어떻게 위로를 치료 차원으로 끌어올릴까? 인간의 삶에 대한 인식은 참으로 복잡하다. 병부터 인식을 해야 하고 거기서 또 다시 스스로를 위로하는 방법까지 터득하여 치료해야만 한다. 살고 싶다면 그래야 한다.

첫 번째 연에는 시간이 언급된다. 시간은 인간의 문제다. 동물은 시간이 문제되지 않는다. ‘시간이 없다’ 혹은 ‘시간이 있다’ 등의 말은 동물에게는 무의미한 말이다. 그런 말은 인간만이 하는 말이다. 도대체 시간이 무엇일까? 인류는 이 시간에 대한 고민으로 수많은 시간을 흘러 보냈다. 그러면서 또 수많은 수수께끼를 풀어내기도 했다. 물리학적 업적은 과히 놀랄 만하다. 하지만 그런 과학적 해석에도 불구하고 인생은 만족을 할 수가 없다. 과학적 지식이 다가 아니라는 얘기다. 도대체 인생은 무엇을 원하는 것일까?

“너 침 흘리는 마녀의 시간이며 / 네 입에서 / 천천히 시간의 물방울이 방울져 떨어져 내린다”. 시간은 마녀의 것이다. 혐오스럽다. 가질 수 없어 짜증난다. 결코 개인의 소유가 될 수 없어 역겹다. 시간의 물방울은 끊임없이 떨어진다. 천천히 떨어진다. 시간과 함께 삶이 떨어진다. 잔인하다. 아무리 저주를 내려도 아랑곳하지 않고 떨어진다. 시간에 대한 모든 혐오감은 헛될 뿐이다. 시간의 떨어짐, 떨어지는 마녀의 침을 막을 길은 없다. 아무리 역겨워도 피할 수가 없다. 성경의 시편에 나오는 평균연령도 여전하다. “우리의 연수가 칠십이요 강건하면 팔십이라”(시편90:10)는 말이 그때나 지금이나 거의 같은 시간을 인생은 경험한다.

어항에 물고기를 키워보면 시간이 보인다. 함께 태어난 어느 작은 물고기들이 어느 시점이 되면 하루 이틀 사이로 모두 함께 죽어간다. 그것이 그들의 운명이다. 그것이 그들에게 주어진 수명이었던 것이다. 아무리 정을 주고 잘 먹여도 정해진 시간이 되면 생명은 멈춘다. 우리의 수명도 마찬가지다. 우리보다 더 오래 사는 존재와 비교하면 인간은 거의 모두 삼만육천오백 일을 넘기지 못하고 죽어가는 지극히 짧은 인생을 살아가고 있을 뿐이다. 시간은 알면 알수록 위로가 안 된다. 위로보다는 오히려 숨이 막혀오는 듯한 답답함이 느껴진다. 삶의

9) Willy Grabert u.a.: Geschichte der deutschen Literatur, München 21/1984, 80 ; “Es muss gestorben sein, nicht vielleicht, sondern gewiss! Wann sterben ist nicht gewiss; wie sterben ist nicht gewiss, wo sterben ist nicht gewiss; aber sterben ist gewiss.”

현장은 탈출구가 안 보이는 미로 같다. 운다고 떡이 생기는 것도 아니다. 시간 앞에 특혜를 받은 자는 없다. 주저앉는다고 해결책이 생기는 것도 아니다.

이성은 시간을 안다. 알아서 문제다. 시간을 알면서 구속의 운명을 인식한다. 이성적 존재인 인간은 시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늘 이성을 가지고 살아야 하듯이 인간은 늘 시간 속에서 살아야 한다. 이성이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은 참으로 무한하다. 영원까지 생각할 수 있다. 그 영원의 시간에 비하면 인생의 시간은 정말 마녀의 침처럼 역겹기만 하다. “저주를 받아라 / 영원의 목구멍이여!”하고 아무리 소리쳐도 운명에는 영향을 끼칠 수 없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계는 무엇일까? 세계가 무엇이란 말인가? 이것 또한 인간의 문제다. 동물에게는 세계가 문제되지 않는다. 그냥 먹고 살 수 있으면 그만이다. 배고프면 먹이를 찾아 먹으면 되고 외로우면 짝을 찾아 떠나면 된다. 행복과 불행도 문제되지 않는다. 하지만 인간은 다르다. 인간은 이성 때문에 지금과 여기에 대해 끊임없이 의혹을 제기한다. 자기 자신조차도 문제가 된다. ‘나는 누구인가?’ 이 질문으로부터 자유로운 영혼은 아무도 없다. 이성적 존재라서 그런 거다. 동물에게는 없는 이 이성이 인간의 삶을 이토록 힘들게 만들고 있다. 이성은 인간의 전유물이다. 그 이성 때문에 동물을 지배할 수 있는 지혜도 있지만 그 이성 때문에 또 한없는 슬픔 속에 살아야 하기도 한다. 자신의 삶을 고해라고 생각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이러한 세계에 대한 인식이 두 번째 연을 채운다. “세계는 - 청동 광석 / 절규를 듣지 못하는 - 불타는 황소”다. 자연 광석은 피가 없고 욕망을 아는 동물은 절규를 듣지 못한다. 그런데 인간은 다르다. “날개 달린 비수를 지닌 고통이 / 내 뼈를 파고든다”. 인간에게 고통이 있다. 뼈속까지 파고드는 고통을 안다. 누가 깨물고 때려서 아픈 게 아니다. 그냥 가만있어도 아플 때가 있다. 인간의 고통은 대부분 이유가 없다. 자신을 아프게 하는 그 고통에 대한 고민으로 인간은 평생을 보낸다. ‘나는 왜 이럴까?’ 답이 없는 질문만이 인생을 채운다.

그리고 첫 번째 연에서처럼 인용문이 등장한다. “세계는 심장이 없나니 / 그것을 슬퍼하는 자는 어리석도다!” 마치 세계가 대답을 하는 듯하다. 첫 번째 연의 인용문은 인간이 시간에 대해 내린 저주였다. “저주를 받아라 / 영원의 목구멍이여!” 이 저주에 대한 대답처럼 들린다. 인식의 소리 같기도 하다. 저주를 내려 봐야 쓸모가 없다는 것에 대한 깨달음 같다. 세상을 원망해봐야 쓸모가 없다. 세상에 대한 원망만큼 어리석은 것이 또 있을까? 누워서 침 뱉기다. 결국 첫 번째 연의 시간에 대한 저주도 어리석은 것이 되고 만다.

세 번째 연에서 고통은 열병으로 이름을 바꾼다. 열병은 매춘부처럼 모든 인간을 향해 다가온다. 그것도 오랫동안! “이미 오랫동안 너는 내 손과 이마를 시험했노라 / 무엇을 더 물으려는가? 무엇을? ‘얼마나 큰 - 대가를 바라는가?’” 열병이 뇌수에 독을 쏟아 부어놓고 손과 이마를 시험했다. 그리고 열병은 그것에 대한 대가를 기대한다. 열병이 무엇인가를 알고자 하는 것 같다. 열병이 인간을 끊임없이 시험한다. 도대체 무엇을 알아내려고 하는 것일까? 고통은 왜 있는 것일까? 인간에게 열병은 매춘부와 같다. 싫어도 달라붙는 그런 존재다.

“- - 아아, 이 매춘부에게 / 그녀의 경멸에 저주 있으라!” 또 다시 저주를 내린다. 고통과 열병에 저항한다. 경멸하는 매춘부로부터 벗어나려는 마음은 원망이 가득하다. 그런 마음은 어리석다고 말했으면서도 쏟아지는 저주의 소리다. 너무 아파서 그런가 보다. 뇌수, 손, 이마를 시험하고 있는 열병의 경멸에 저주를 내린다. 하지만 세상은 이런 절규를 듣지 못한다. 세계에는 심장이 없다고 했다. 슬퍼하는 자는 스스로 어리석음 속에 가둬놓고 있을 뿐이다.

네 번째 연은 다시 마음이 바뀐다. 그토록 저주했던 열병을 받아들이려 한다. 의도적으로 열병을 의식하고자 하는 것이다. “아니다! 돌아오라! / 밝은 차고, 빗소리가 들려온다 / 좀더



부드럽게 너를 맞아야 하는가? / - 받아라! 여기 황금이 있으니: 그 얼마나 찬란하게 빛나고 있는가! - / 너를 '행복'이라 부를까? / 너, 열병을 축복해야 할까? -" 아픔에 대한 마음이 바뀌었다. 그토록 저주했건만 밖이 차다는 인식에 또 밖에는 비가 온다는 생각에 열병을 안으로 끌어들이려 한다. 열병에 대해 동정심이 생긴 것이다. 아니 열병이 행복이었다. 축복을 해야 할 존재였던 것이다. 그래서 추운 데 있지 말고 안으로 들어오라 한다. 내가 황금이니 마음껏 가지라 한다. 고통을 품으려 한다. 고통과 직면하려 한다. 열병과 함께 하고 싶어 한다. 왜 그럴까? 왜 고통을 받아들이려 하는 것일까? 모든 의혹은 마지막 연에서 풀린다.

다섯 번째 연이다. 시의 마지막 연이다. 열병으로 침대에 누워 있던 환자가 창문을 활짝 연다. "문이 활짝 열린다! / 비가 침대에 들이친다! / 바람이 등불을 꺼트린다 - 쏟아지는 재난!" 소름이 끼칠 정도의 찬바람이 느껴진다. 재난이 쏟아진다. 재난이 침대까지 위협한다. 그러면서 열병을 맞이한다. 고통이 뼈를 파고든다. 자기 뇌수와 손 그리고 이마를 또 다시 시험하게 한다. 고통이 쏟아진다. 모든 것은 재난이다. 고통은 온몸으로 퍼져간다. 열병이 더 도진다. 아픔이 더 심해진다. 고통이 극에 달하는 느낌이다.

그런데 마지막 문장이 반전을 이끈다. "- 지금 백 개의 각운을 지니지 못한 자는 / 내기를 걸고 단언건대 / 죽음을 맞으리라!" 죽음에 맞설 수 있는 것은 백 개의 각운이다. 그토록 글쓰기를 강조했던 철학자의 해결책은 시詩였다. 이성적 존재를 위한 글이다. 백 개는 숫자에 불과하다. 수많은 수를 대변하는 것이다. 수많은 시를 가지고 있다면 삶을 유지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면 죽음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는 릴케의 <가을날> 마지막 연을 연상시킨다. "지금 집이 없는 사람은 이제 집을 짓지 않습니다 / 지금 혼자인 사람은 그렇게 오래 남아 / 깨어서 책을 읽고, 긴 편지를 쓸 것이며 / 낙엽이 흩날리는 날에는 가로수길 사이로 / 이리저리 불안스레 헤맬 것입니다"<sup>10)</sup>.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자는 불안스레 헤맬 것이다. 니체식으로 말하면 살아남지 못할 것이다. 죽음을 맞이할 것이다.

고통에 맞설 수 있게 해주는 것이 시다. 백 개의 각운이다. 글이 이성적 존재가 겪게 되는 고통에 대한 처방이다. 왜 그토록 글쓰기에 집착을 하는지 이제 감이 잡힌다. "자신을 위해서 글을 쓴다 - 이성적인 작가는 자신의 후세만을 위해 글을 쓰지 어떤 다른 후세를 위해 글을 쓰지는 않는다. 다시 말하면 그는 자신의 노년을 위해, 즉 자신에게서 기쁨을 느끼기 위하여 글을 쓴다."<sup>(인간적II, 103쪽)</sup> 자기 자신을 위해 글을 쓰라. 노년을 준비하는 가장 중요한 작업이다. 재난이 닥쳐올 때 백 개의 각운을 갖고 있지 않다면 아무런 힘도 없이 쓰러지고 말 것이다. 살고 싶으면 시를 쓰라는 것이다. 살고 싶으면 "그렇게 해야 할 뿐"<sup>(160쪽)</sup>이다.

게다가 시는 좋은 산문을 쓰기 위한 조건이다. "실제로 우리는 시와 직면해 있을 때에만 좋은 산문을 쓸 수 있다."<sup>(158쪽)</sup> 각운과 운율 혹은 리듬 등으로 얹매여 있는 글을 먼저 훈련해야 한다. 그런 다음에야 비로소 그런 형식으로부터 자유로운 글을 쓸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좋은 글이 삶을 삶답게 해줄 것이다. 글이 삶을 도와줄 것이고 공허한 시간을 의미로 채워줄 것이다. 의미 있는 시간은 한없이 느리게 흘러간다. 니체는 그렇게 단언한다.

훗날 니체는 《이 사람을 보라》에서 이런 말을 남기게 된다. "하나는 나이고 다른 것은 나의 글들이다"<sup>11)</sup> 원문을 직역한 것이다. 책세상 번역은 의역을 해놓았다. "나와 내 작품들은 별개다."<sup>(이 사람, 375쪽)</sup> 어떤 번역이 좋은지 논하지 말자. 어쨌든 니체는 자기 자신과 자신의 글이

10) : 형상시집, 신시집, 진혼곡, 마리아의 생애, 두이노의 비가, 오르페우스에게 바치는 소네트, 릴케집집 제 2권, 책세상 3/2011, 43쪽.

11) Nietzsche: Sämtliche Werke. Kritische Studienausgabe, Band 6, München 1980, 298쪽; "Das Eine bin ich, das Andre sind meine Schriften."

다른 존재임을 주장하고 싶은 것이다. 동물적 생명으로 만족할 수 없는 것이 인간의 존재다. 인간의 삶에는 이성이 동반되기 때문이다. 이성은 또 다른 만족을 요구한다. 그것은 먹고 잠자는 것으로 결코 만족할 수가 없다. 그것이 인생의 모든 문제와 연결된다.

물론 위의 시를 가지고 자서전적으로 해석을 할 수도 있다. '매춘부를 찾아 갔을 것이고 성병을 얻어 열병이 났구나'하고 말이다. 하지만 창작의 세계는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개인적인 경험과 그것을 예술로 승화해내는 작업은 연관성은 있겠지만 그것이 필연적인 것은 아니다. 오히려 그런 자서전적인 해석에 연연하는 독자는 니체가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놓칠 수도 있다. '알았다!'고 단정하는 순간 더 이상의 궁금증은 있을 수 없다. 자기 안에 오류가 "서로 투쟁을 벌이는 존재"<sup>(187쪽)</sup>가 사상가라 했다. 사실이 입증되어도 오류를 품었다고 간주하며 스스로를 질문 상황으로 내모는 것이 진정한 사상가의 삶인 것이다. 알아도 아는 게 아니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한다.

아무리 이런 소리를 해도 의혹은 떨칠 수 없다. 많은 학자들은 매춘부에게서 얻은 열병이 매독이었을 것이고 또 그 매독이 훗날 광기의 원인이 되었을 것이라고 추측을 한다. 그러면서 니체가 공들여 세워놓은 광기의 철학 전체를 뒤흔들어 놓는다. 물론 이런 의혹이 잘못이라는 얘기는 아니다. 정황상 당연한 소리일 수도 있다. 하지만 추측은 추측으로 끝나야 마땅하다. 그것을 진실 혹은 사실이라고 단정하지는 말자는 것이다.

니체 철학 전부를 매춘부에게서 얻은 열병과 그에 대한 원망의 산물로 간주한다면 그것만큼 무례한 것이 없다. 니체의 철학은 특히 자서전적 정보로부터 자유로워질 때 진정한 의미를 획득한다. 왜냐하면 자서전적인 정보가 텍스트 이해에 도움이 될 때도 있지만 때로는 오해의 원인이 되기도 하기 때문이다. 니체가 거의 마지막 정신으로 《이 사람을 보라》를 쓰게 된 계기도 이런 오해를 예방하기 위함이었다. "내 과제의 위대함과 동시대인의 비소함 사이에서 오는 오해는 사람들이 내 얘기를 들어보지 않았고 나를 쳐다보지도 않았다는 사실로 나타난다. [...] 내 말을 들으시오! 나는 이러이러한 사람이기 때문이오. 무엇보다도 나를 혼동하지 마시오!"<sup>(이 사람, 323쪽)</sup> 니체는 삶의 현상에 얽매이지 않으려 했다. 그에게 있어 자기 자신과 자기 글은 별개의 것이었다. 그래서 독자도 그가 발표한 책들, 적어도 그가 남겨놓은 글들 속에서 해석의 실마리를 찾으려 노력해야 한다. 니체가 원했던 것도 "나를 버리고 너희를 찾도록 해라"<sup>(이 사람, 328쪽)</sup>는 것이었다. 니체의 책을 읽으면서 자신이 아니라 니체를 찾으려 했던 독자는 그가 가르쳐준 "올바른 독서의 미덕"<sup>(394쪽)</sup>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이다.

텍스트 속에 남겨놓은 니체의 글에 집중해보자. 세상은 심장이 없다. 세상을 원망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도대체 니체는 이런 말들을 가지고 무슨 말을 하려 했던 것일까? 고통, 열병, 아픔, 상처, 이런 것들이 삶의 본성일까? 병에 걸리면 사실 모든 의욕이 사라지고 만다. 침대에 누워 있어야 한다. 소중한 삶의 시간을 그렇게 누워서 보내야 할까? 병과 함께 살아야 하는 인생이라면? 고통이 삶의 내용이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 눈물을 흘리며 시간을 보내야 할까? 그것으로 위로가 될까? 니체는 아니라고 믿었던 것이다. 병든 인생에 스스로 위로하는 방법을 찾고자 했던 것이다. 어쩌면 그것이 글쓰기였는지도 모를 일이다. "백 개의 각운"을 갖고자 했던 치열한 글쓰기가 그의 글들을 고전으로 만들어놓았다.

## 5. 항해를 중용하는 떠남의 철학

항해를 떠나야 한다. 그것이 허무주의 철학이다. 떠남의 미학이라고 할까. 허무주의 철학은

떠남에 대한 인식과 함께 시작한다. 바다로 떠나야 한다. 말은 참 쉽다. 대부분의 인간은 떠나지 못하고 산다. 익숙한 곳에 머무르려 하는 것이다. 이런 습성에 저항하는 것이 허무주의 철학이다. 있던 곳을 버리고 떠나야 한다. 그리고 떠날 때는 돌아올 생각일랑 말라고 가르친다. 태어난 자는 자궁으로 돌아갈 수 없다. 이 세상에서 살아야 한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살아남아야 한다. 사는 것이 사람의 뜻이다. 삶의 의미는 살면서 찾아야 한다. 죽음이 발목을 잡을 때까지 영원한 충동으로 삶에 임해야 한다. 그것이 주어진 삶에 대한 예의다.

### 새로운 바다로

그곳으로 - 나는 가련다  
내 마음과 손을 믿고  
열린 바다로 무작정  
내 제노바의 배는 향한다

모든 것이 새롭게 빛난다  
시간과 공간 위에 잠들어 있는 정오 -  
오직 그대의 눈만이 두렵게  
나를 응시하는구나, 영원이여! (414쪽)

이번에는 단 두 개의 연으로 이루어진 시다. 비교적 짧다. 떠나는 마당에 구구절절 애절한 소리를 쓸 필요는 없기 때문일까. 말이 많으면 마음이 약해질까봐 그런 것일 수도 있다. 어쨌든 짧다. 감정의 선이 굵게 나타난다. 시작부터 이미 결연한 의지가 엿보인다. 그리고 바다 앞에 서 있다. 말 그대로 “새로운 바다”다. 이것은 어떤 바다일까? 같은 바다를 보고서도 새롭다고 느껴지는 바다이기에 묻고 싶은 것이다. 《아침놀》에서 이미 다양한 힌트를 남겨놓았다. 한 예로 니체는 거기서 이런 말을 한 적이 있다. “거대한 침묵 속에서. - 여기는 바다다.”(아침, 331쪽) 바다가 보이는가? 니체가 말하는 바다가 보이는가? 거대한 침묵 속에 파도 치는 바다가 보이는가? 침묵 속으로 항해를 떠나야 한다. 그 침묵 속에서 말이라는 육지를 만날 때까지 시인은 모험 여행을 떠나야 한다. 멈출 수 없는 여행이다. 돌아갈 수도 없는 여행이다. 싸워 이겨야만 하는 싸움이다. 창조적인 삶은 치열할 수밖에 없다. 치열해야 창조할 수 있기 때문이다. 목숨을 건 싸움도 마다하지 말아야 창조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창조가 말처럼 쉬우면 얼마나 좋을까. ‘금 나와라 뚝딱!’하면 금이 나와 주면 얼마나 좋으랴. 동화의 나라에서나 적용될 수 있는 간단한 논리는 어린아이의 것이다. 하지만 세상살이는 그런 게 아니다. 삶은 거저주어지지 않는다. 살고자 하는 의지를 불태워야 가능한 것이 삶이다. 허무주의 철학이 지향하는 삶은 그저 동물적인 생존이 아니다. 정신적인 삶을 지향한다. 이성적 존재가 만족할 수 있는 삶을 원하는 것이다. 무한도전이다. 왜냐하면 이성은 끝을 모르기 때문이다. 이성이 지향하는 이상향은 우주를 아우르는 크기다. 별처럼 영원처럼 멀기도 하다. 그런 이성의 요구에 도전장을 내미는 것이다. 무모한 도전이 아닐 수 없다.

새로운 바다로! “그곳으로 - 나는 가련다”. 이미 결심은 섰다. 아무도 막을 수 없다. 누가 길을 막아도 헤치고 나아갈 기세다. 침묵의 바다로 나는 가련다. 그동안 알고 있던 말을 잊어버리리라. 망각의 강을 기필코 건너고 말리라. 그리고 새로운 침묵을 인식하리라. 지금까지 경험한 그 어떤 침묵도 지금과는 전혀 다른 것이 되리라. “육체여, 너는 떨고 있는가? / 내

가 너를 어디로 데리고 가는가를 안다면 / 너는 더욱 멀게 되리라”(317쪽). 이 정도는 돼야 한다. 가야할 곳이 그런 곳이다. 멀게 될 곳이다. 마실 물 한 방울 없는 사막 같은 바다다. 두려움이 느껴질 곳이다. 무서움이 온 몸을 휩싸게 될 곳이다. 온 몸이 부들부들 떨게 될 것이다. 용기가 요구되는 곳이다. 죽을 각오로 덤벼야 할 싸움이다. 하지만 전혀 주눅 들지 않았다. “그곳으로 - 나는 가련다”고 다짐하는 소리에서 그 어떤 흔들림도 느껴지지 않는다.

“내 마음과 손을 믿고 / 열린 바다로 무작정 / 내 제노바의 배는 향한다”. 믿음의 대상은 “내 마음과 손”이다. 믿을 것은 그것뿐이다. 몸과 마음뿐이다. 끝까지 책임지고 지켜야 할 것이다. 누구에게도 맡길 수 없는 것이다. 자기 삶을 대신 살아달라고 부탁할 수도 없다. 아무리 귀찮아도 스스로 해결해야 하는 것이 삶이다. 어렸을 적 누나들이 장난하던 소리가 떠오른다. 추운 겨울 어느 날 따뜻한 방안에 누워 있을 때 누군가가 가끔 ‘나 대신 오줌 좀 누고 와!’하고 장난스럽게 말한다. 그렇다. 그것은 장난일 뿐이다. 진심이 될 수 없다. 오줌을 누려면 스스로 일어나서 화장실로 가야 한다. 가끔 그것이 귀찮을 뿐이다.

몸은 귀찮다. 늘 시간과 공간의 한계를 넘어서지 못하고 현상에 묶여 있을 뿐이기 때문이다. 이 몸만 없으면 자유로울 텐데. 이런 생각이 끊임없이 유혹한다. 하지만 이런 유혹에 발목이 잡히면 삶 자체가 위기에 빠지고 만다. 몸이 불필요한 것이라고 판단되는 순간 이미 삶은 극단에 가 있을 것이다. 벼랑 끝에 선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거기서 뛰어내리는 것은 나약한 선택이다. 자기 자신의 몸에 대한 해코지일 뿐이다. 허무주의 철학은 건강한 선택을 종용한다. 시간과 공간의 규칙을 잘 알고 그 놀이를 제대로 시작하라고. 삶 자체는 유희라고. “세계의 유희는 위풍당당하게 / 존재와 가상을 뒤섞어놓는다 / 영원한 어릿광대가 / 우리를 뒤섞어놓는다 - 그 안으로!”(399쪽) 이게 삶이다. 뒤죽박죽이다. 혼란스럽다. 마야의 베일이 따로 없다. 하지만 여기서 유희의 맛을 보아야 한다. 그것이 인식이며 깨달음이다. 사람이 살아서 알고자 하는 것이다. 인간이 인생에서 얻고자 하는 것이다.

배를 타고 떠날 때 기분은 참 묘하다. “열린 바다로 무작정” 떠난다. 배에 몸을 싣고 어디로 향할지도 모른 채 무작정 떠날 때가 있다. 물론 ‘표를 샀을 테니 표를 보면 될 것 아니냐’고 멋대가리 없는 말을 할 수도 있다. 그런 논리적인 말일랑 삼가자. 그냥 목표도 없이 떠나는 그런 마음을 이해하고 느껴보자. 눈을 감고 그저 향하고 있는 그 방향에 몸을 맡겨보자. 때로는 정해진 철로를 달리는 기차를 타고도 이런 놀이를 할 수도 있다. 어디로 갈지 정해놓지 않은 사람처럼 멍하니 창밖을 내다볼 때도 있다. 그때 비로소 긴장이 풀리고 새로운 세계가 펼쳐진다. 그때 세계가 열린다. 그때 보이는 바다가 열린 바다로 인식된다. 새로운 바다에서는 모든 것이 새롭다. 모든 것이 낯설다. 모든 것이 신기하다. 호기심 없이는 다가설 수 없는 세계다. 여행을 하면 이런 기분이다. 하지만 재밌다. 그래서 여행을 떠나는 것이다. 새로움이 전해주는 것을 맛보기 위해 떠나는 거다. 그런데 삶의 현장이 여행지다.

“모든 것이 새롭게 빛난다”는 느낌. 얼마나 멋진가. 주변이 온통 빛으로 충만한 새로운 바다에서 맞이하는 느낌이다. 빛을 상실한 게 아니다. 우울한 분위기가 아니다. 정반대의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모든 것이 찬란하게 빛난다. 눈이 부서 눈을 감아야 할 정도다. 실눈을 뜨며 열린 바다를 바라본다. 물결이 반사하는 햇살이 눈부시다. 잘게 쪼개진 햇살이 눈부시다. 세상이 온통 새로운 빛으로 충만하다. 항해는 이런 느낌이다. 열린 바다는 희망으로 충만하다. 꿈과 같다. 아폴론적 “꿈의 세계의 아름다운 가상”(비극, 30쪽)이 이런 것이리라. 삶을 위한 힘을 다시 끌어 모은다. 떠나면서 얻게 되는 힘이다. 버리면서 획득하는 의지다.

힘이 생기면 시간과 공간에 대한 인식은 새로워진다. 지금은 “시간과 공간 위에 잠들어 있는 정오”의 시간이다. 시간이 잠들어 있다. 그 시간을 의식하고 있는 시적 자아. 시간을 관

찰하고 있다. 정오! 에피쿠로스의 시간이다. 성스러운 시간이다. 즐거운 시간이다. 행복한 시간이다. 《즐거운 학문》과 함께 도달한 시간이다. 《아침놀》에서 아침을 경험했다면 이제는 정오를 경험하고 있다. 물론 하지<sub>夏至</sub>를 넘겨야 삼복더위가 오고 동지<sub>冬至</sub>를 넘겨야 소한과 대한이 있듯이 정오를 넘겨야 하루의 절정이 다가온다. 그것이 《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이다. 니체가 인류에게 선사한 최고의 선물이라고 자처하는 대표작이다. “이 책으로 나는 인류에게 지금까지 주어진 그 어떤 선물보다 가장 큰 선물을 주었다.”(이 사람, 326쪽) 참 당당하다. 글을 쓰는 사람으로서 이런 소리 한 번쯤 하고 죽고 싶다.

정오! 그때 눈에 띄는 새로운 눈이 있다. “오직 그대의 눈만이 두렵게 / 나를 응시하는구나, 영원이여!” 정오의 태양이 두렵도록 나를 응시하고 있다. 영원이 나를 응시하고 있다. 주체와 객체가 전환을 한 순간이다. 인식의 반전이 이루어진 순간이다. 몰아일여 내지 몰아일체가 이런 순간일 것이다. 시선이 밖에서 안으로 향한다. 영원의 시선이다. 영원의 시선과 함께 영원에 동참한다. 전혀 불편하지 않다. 반대로 너무도 행복하다. 영원이 나를 응시하고 있는 느낌은 너무도 긍정적이다. 우리 모두는 영원 속에 있다. 영원을 인식하는 느낌이다. 영원의 시선에 자신의 몸 전체가 적나라하게 들키는 느낌이다. 하지만 그 들김은 쑥스러움이 아니다. 기분이 좋다. 상쾌하다. 영원에 들킨 느낌은 스스로를 영원 속에 동참하게 해준다. 이를 두고 구원이라고 해도 좋고 또 해탈이라고 말해도 좋다.

살면서 영원을 인식하는 순간이 몇 번이나 될까. 누구는 단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하고 생을 마감하기도 한다. 누구는 오르가즘조차 제대로 느껴보지 못하고 인생의 숙제를 끝낸다. 온 몸을 던지지 못한 탓이다. 이성애 얽매여 산 결과다. 인간은 이성과 함께 살아야 한다. 그것은 진리다. 하지만 이성애 얽매일 때 삶은 피곤해진다. 삶은 결코 놀이터로 변해주지 않는다. 이성을 잘 이용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을 잘 이용해야 한다. 생각 하나로 삶을 지옥으로 만들 수도 있고 천국으로 만들 수도 있다. 로댕이 <생각하는 사람>을 《지옥의 문》 위에 얹어놓은 이유도 여기에 있었을 것이다. ‘제발 좀 생각의 힘을 깨달으라’고. ‘존재와 가상’<sup>(399쪽)</sup>이 뒤섞여 있는 이 세상의 모습을 좀 제대로 바라보라고. 인식이 오면 다양한 사물들이 뒤섞여 있는 현장조차 간단해 보일 것이다. 뽁뽁 닫혔던 문이라고 생각했던 것도 열린 문으로 인식될 것이다.

## 6. 알프스의 산골마을 질스마리아로 떠난 철학자

떠나야 했다. 질스마리아는 우연히 도착한 곳이다. 끝까지 가자고 간 곳이 그곳이었을 뿐이다. 마치 떠나자고 간 곳이 늘 가던 곳 속초 앞바다인 것처럼. 니체는 알프스로 떠났다. 높은 산 넓은 호수 맑은 공기 눈부신 태양 살아 숨 쉬는 자연의 소리가 사방에 널려 있다. 시간이 멈춘 듯하다. 마녀의 물방울 따위는 느껴지지도 않는다. 이성을 가진 존재는 묘하게도 자연 속에서 힘을 회복한다. 정해진 것이 없는 자연 속에서 건강을 회복한다. 견딜 수 없어 힘들어하는 정신은 늘 자연과 마주하면서 경직된 상태를 극복해낸다.

알프스의 자연 속에서 니체는 건강을 회복한다. 질스마리아! 니체가 이곳으로 간 때와 이유는 역사적으로 증명이 가능하다. 때는 “1881년부터 1888년까지”<sup>12)</sup>다. 이유는 요양이 필요해서다. 휴식이 요구되었던 것이다. 특히 이 시기에 그 유명한 살로메와의 만남이 이루어졌다. 1882년 4월부터 10월까지 만 6개월 동안 지속되었던 살로메와의 만남이 결별로 끝난 이야

12) [https://de.wikipedia.org/wiki/Sils\\_im\\_Engadin/Segl](https://de.wikipedia.org/wiki/Sils_im_Engadin/Segl)

기다. 1882년의 뜨거웠던 여름의 이야기! 한 남자의 생애에 가장 강렬했던 사랑의 이야기가 이때 형성된다. 그런데 헤어져야만 했다. 그 기분을 이해해야 한다. 처음 만났을 때는 다른 별에 있는 것처럼 느꼈던 사람의 마음이다. “어떤 별에 우리는 지금 떨어졌는가요?”<sup>13)</sup> 사랑의 콩깍지가 만들어내는 신세계를 경험했던 사람의 마음을 이해해야 한다. 정말 좋아했던 사람과 이별해야만 했다. 나쁜 말로 하면, 차였다. 원하지 않은 이별을 해야만 했다. 가질 수 없는 사람을 떠나보내야 했다. 마음이 마음처럼 안 된다. 상처는 이때 생겨난다. 죽을 것만 같은 느낌이 밀물처럼 달려든다. 그런데 모든 “질병은 인식의 수단”<sup>(인간적, 14쪽)</sup>이라 했다. 아픔의 크기만큼 깨달음도 깊다. 그 인식의 순간을 한 편의 시에 담는 데 성공했다.

### 질스마리아

여기에 나는 앉아, 기다리고 또 기다린다 - 무~~를~~  
 선악의 저편에서, 빛을 즐기고  
 또 그림자를 즐기며, 모든 것은 유희일 뿐  
 모든 것은 호수이고 정오이고 목표 없는 시간일 뿐

그때 갑자기, 나의 여인이여, 하나가 둘이 되었다 -  
 - 그리고 차라투스트라가 내 곁을 지나갔다... (414쪽 이후)

사실 지금까지 니체의 책들을 읽어오면서 수차례 인용했던 시다. 그만큼 즐겨 읽은 시라는 뜻이기도 하다. ‘질스마리아’하면 자동적으로 ‘여기에 나는 앉아’가 뒤따를 정도다. 정확히 언제 이 시가 쓰여졌는지는 알 길이 없다. 니체가 시 아래 집필 날짜를 직접 적어놓지 않아서다. 대충 감을 잡을 뿐이다. “에비게 비더쿤프트Ewige Wiederkunft”, 즉 영원회귀 사상은 이미 “1881년 8월”<sup>14)</sup> 경에 형성되었다고 한다. 그 흔적은 《즐거운 학문》 곳곳에 남아 있다. 그래도 1882년 10월 이후가 아닐까 하는 의혹을 품어본다. 영원회귀 사상은 최소한 살로메와의 이별이 가져다 준 선물로 보여지기 때문이다.

현학적 지식욕은 물어두고 다시 한번 시에 빠져보자. 그리고 새로운 독서체험을 해보자. 지금까지 알고 있던 것을 모두 던져버리고 니체의 말에 귀를 기울여보자. 이성에 의해 왜곡되지 않도록 이성으로부터 자유로워져 보자. 니체가 전하는 “마음과 손”<sup>(414쪽)</sup>을 느껴보자. 첫사랑의 그때처럼 짜릿함을 느껴보자. 진정으로 사랑했다가 치명적인 상처를 받은 영혼의 처절함을 느껴보자. 죽음의 문턱까지 갔다 돌아오는 영혼을 맞이해보자.

질스마리아Sils-Maria! 높은 산 알프스에 있는 산골 마을 이름이다. 이곳에서 니체는 1881년부터 1888년까지 머물렀다고 했다. 잠시 다른 곳으로 여행을 하기는 했지만 주로 머문 곳은 질스마리아였다. 그곳에 가면 호숫가에 피라미드 모양의 커다란 바위가 하나 있다. 사람들은 그 돌을 “니체-돌Nietzsche-Stein”<sup>15)</sup>이라고 부른다. 그 위에 앉아서 아마도 니체는 영원회귀 사상에 대한 영감을 받았을 것이다. 그 위에 앉아 있는 니체의 사진이 없으니 사실 증명할 길은 없다. 그래도 믿어보자. 여기에 니체가 앉아 있었다고. 그곳에 앉아 니체의 시선을 사로잡았을

13) Rüdiger Safranski: Nietzsche. Biographie seines Denkens, 책, 258쪽; “Von welchen Sternen sind wir uns hier einander zugefallen?”  
 14) [https://de.wikipedia.org/wiki/Die\\_fröhliche\\_Wissenschaft](https://de.wikipedia.org/wiki/Die_fröhliche_Wissenschaft)  
 15) [https://de.wikipedia.org/wiki/Friedrich\\_Nietzsche](https://de.wikipedia.org/wiki/Friedrich_Nietzsche)

알프스를 바라보자. 드넓은 호수도 한번 바라보자. 그러면 영원회귀가 어떻게 오게 되는지 대충 감이 잡힐 것이다. 아니 꼭 비싼 돈을 들여 스위스로 가서 이른 체험을 할 필요까지는 없다. 주변의 산을 찾아가 큰 바위 위에 앉아보자. 그리고 니체의 시선으로 자연을 한번 바라보자. 영원회귀가 도대체 무엇인지 질문하면서.

이제 그가 남겨놓은 말들을 읽어보자. “여기에 나는 앉아, 기다리고 또 기다린다 - 무를”. ‘여기’와 ‘나’라는 말이 왜 이리도 강하게 들리는지. 모든 생각은 자신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 부터 물으면서 시작해야 한다. 현 위치를 먼저 파악해두는 것이다. 그리고 내가 그 생각의 중심에 서 있어야 한다. “주관 없이는 객관도 없다.”<sup>16)</sup> 쇼펜하우어가 한 말이다. 내가 인식하는 모든 세계는 ‘나’라는 의식이 있기에 가능한 것이다. 동물에게는 세계관이 없다. ‘세계’는 인간의 문제다. 세계에 대한 인식은 인간의 문제다. 인간은 살아가는 동안 끊임없이 이 세계에 대한 질문을 하게 된다. 아무리 묻고 또 물어도 석연치 않은 것이 세상과 자기 자신에 대한 질문이다. 세상이 무엇인가? 나는 누구인가? 무엇이 인생인가? 이 모든 질문은 인간이기에 던지게 되는 것이다. 집착으로는 도저히 답을 얻을 수 없는 질문들이다.

세계와 자기 자신에 대한 질문에는 객관적인 정답이 있을 수 없다. 보편타당한 정답이 없다는 얘기다. 사랑, 정의, 진리, 자유, 종교, 심지어 신까지도 정답이 없다. 이런 주제로 대화를 나누면 재밌기도 하지만 허무하기도 하다. 누구는 이걸 두고 불교를 말하며 누구는 저걸 두고 불교를 말한다. 이때 ‘그건 불교가 아니다!’고 단정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정신은 없다. ‘그것은 사랑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정신만큼 답답한 게 없다. 그렇게 단정하고 배타적인 정신으로는 공감의 체험을 할 수가 없다. 어떤 집단 이데올로기 안에서 이루어지는 이기적인 체험은 할 수 있어도 ‘모두 함께’라는 이념으로 확대되는 경지에는 도달하지 못한다.

진정한 인식은 이성적 격률에서 벗어날 때 가능해진다. 이성적으로 만들어놓은 원칙들에서 벗어날 때 쾌감이 느껴진다. 모든 오르가즘은 이성을 완전히 내려놓을 때 도래한다. 정신줄을 내려놓을 때 짜릿함이 전해진다. 새로운 바다는 이전의 모든 것으로부터 해방될 때 열린다. 비우고 내려놓고 떠나면서 채워지고 깊어지며 돌아오게 된다. 허무주의 철학은 “이성에 대한 이성의 투쟁”<sup>17)</sup>이라고 했다. 이성을 버림으로써 이성을 획득한다. 마음을 비움으로써 마음을 다잡는다. 눈을 감음으로써 눈을 뜬다. 이성적 인간의 건강회복은 참으로 특이하다. 머리를 자르고 살 수 없는 것이 인간이라면 머리를 쓰는 일에 달인이 되는 수밖에 없다. 머리는 이성의 비유일 뿐이다. 이성이라는 무기를 잘 다루는 전사가 되어야 한다.

기다림은 이성적 행위다. 시간 속에서 이루어지는 행위라는 얘기다. 그런데 그 기다림의 대상이 무여야 한다. 역설이다. 아무것도 기다리지 않아야 한다. 대상이 없는 기다림은 시간으로부터 자유롭다. 그런 기다림을 기다릴 줄 알아야 한다. 이성적 논리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기다림이다. 이성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비결이 여기에 있다. 하나의 사슬에 얽매이지 않을 수 있는 열쇠가 여기에 있다. ‘이게 아닌데!’하면서 당황하지 않아도 되는 생각의 힘이 여기에 있는 것이다. 모든 생각을 버려보자. 머리를 비워보자. 자기 안에 무가 채워질 때 인식이 온다. 몰아일여는 이때 실현된다. 몰아일체는 이 순간에 인식의 대상이 된다.

“선악의 저편에서” 무가 도래한다.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을 넘어설 때 무가 인식이 되어 다가온다. 선과 악에 대한 이념을 넘어설 때 신세계가 펼쳐진다. 이건 이거다 저건 저거다라는 소리를 하지 않을 수 있을 때 우리는 선악의 저편에 도달하게 되는 것이다. 선악의 저편! 니

16) : 의지와 표상으로서의 세계, 위의 책, 84쪽.

17) 재인용, Rüdiger Safranski: Nietzsche. Biographie seines Denkens, 위의 책, 138쪽; “der Kampf mit der Vernunft gegen die Vernunft”.

체가 꿈꾸는 이상향이다. 허무주의의 축제를 벌일 수 있는 세상이다. 모두가 “근원적 일자”(비극, 34쪽)가 되어 하나가 되는 기쁨을 만끽하는 세상이다. ‘우리는 하나다!’ 이것이야말로 신비로운 체험이다.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체험이다. 그것을 말로 설명하려 할 때 이미 왜곡이 시작되고 만다. 깨달음의 경지는 말로 설명되는 것이 아니다.

선악의 이념을 넘어서면 모든 것이 빛으로 충만해진다. 세속적인 온갖 법은 사라지고 진정한 법의 지배를 받는다. “빛을 즐기고 / 또 그림자를 즐기며, 모든 것은 유희일 뿐 / 모든 것은 호수이고 정오이고 목표 없는 시간일 뿐”이다. “존재와 가상”(399쪽)이 뒤섞여 있는 세상에서 “유희”만이 존재한다. 인생 자체가 “세상의 유희”(같은 곳)에 동참하는 순간이다. 사는 게 즐겁다. 이런 소리가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순간이다. 빛이 즐거우면 그림자도 즐겁다. 그림자가 춤을 추는지 내가 춤을 추는지 알 수 없는 묘한 기분이 이때 드는 것이다.

하나의 세상을 깨고 나오면 새로운 세상이 기다리고 있다. 그 이전의 하나가 전부라고 생각했던 생각이 너무도 가련하게 여겨진다. 중생(重生)을 경험하고 나면 이전의 자아는 대상이 되고 만다. 결코 돌아갈 수 없는 자아가 되고 만다. 시간을 되돌릴 수 없듯이. 또 다른 자아가 형성되고 나면 모든 것이 다르게 보인다. 모든 것이 변하고 만다. 그 변화의 중심에 자기 자신이 있을 뿐이다. 물론 새로운 시간이 또 다가오겠지만 그 또한 지나가리라.

“그때 갑자기, 나의 여인이여, 하나가 둘이 되었다 - / - 그리고 차라투스트라가 내 곁을 지나갔다...” 두 번째 연이다. 연 나눔이 이뤄졌다. 읽을 때도 잠시 여운을 두고 읽어야 한다. 행복감을 직접 느껴야 한다. “그때 갑자기” 인식이 온다. ‘아하!’하는 감탄사가 터지듯이 그렇게 깨달음이 오는 것이다. 인식은 늘 이렇게 느닷없이 온다. 번개는 순식간에 치게 된다. 하지만 징조는 미리 느낄 수 있다. 먹구름이 모여드는 것은 미리 알 수 있다. 무를 기다려야 하는 정신은 그 알 수 없는 무에 대한 열망을 내면으로부터 감지하게 된다. 무를 기다린 정신이 유희를 즐기다가 갑자기 깨닫는다. 그때 “하나가 둘이” 된다. 내가 나와 너로 갈라선다. 이전의 자아와 이후의 자아로 나뉜다. 상처가 많았던 자아가 이전의 자아라면 이후의 자아는 무에 의해 새롭게 태어난 자아다. 거듭 태어난 것이다. 중생(重生)이 이루어진 것이다. 그의 이름은 차라투스트라라고 불린다.

선과 악을 넘어서 정신이 인식한 자아는 차라투스트라이다. 그는 “이란에서 발생한 종교 중 하나인 조로아스터교의 신”(18)이다. 그는 선악을 구분한 최초이 신인 동시에 그 선악을 운운하는 모든 도덕을 넘어서 신이기도 하다. 이런 의미에서 니체는 차라투스트라를 이해하고 동일성을 찾는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자. 이 또한 현학적인 지식 놀이일 뿐이다. 차라투스트라의 가르침은 오로지 초인에게 집중되어 있다. 니체는 초인을 미래의 인물로 설명한다. 그가 누군지는 우리가 규정해야 한다는 뜻이다. 다른 사람들에게 물어볼 필요가 없다. 차라투스트라도 초인도 모두가 우리의 몫이다.

니체가 말하는 것은 차라투스트라의 말로 전환이 이루어진다. 참으로 독특한 상황이다. 괴테가 《파우스트》를 썼다고 해서 파우스트가 하는 말을 괴테의 말로 동일시할 수는 없다. 하지만 니체와 차라투스트라의 관계는 다르다. 차라투스트라가 한 말은 곧 철학자 니체가 한 말이나 다름이 없게 된다. “세계의 바퀴는 굴러 / 목표와 목표를 스쳐간다”(399쪽)는 구절이 떠오른다. 선과 악을 구별하면서 그 선과 악을 다시 극복해내는 신의 모습이 차라투스트라이기 때문이다. 모든 것이 돌고 또 돈다. 영원히!

이런 이념을 훗날 니체는 ‘에비게 비더쿤프트’, 즉 “영원회귀 사유”(이 사람, 419쪽)라고 말한다. 이리저리 떠돌던 생각이 하나의 개념으로 정착된 것이다. 이름을 얻은 것이다. 정오라 불리는

18) <https://de.wikipedia.org/wiki/Zarathustra>



영원의 눈이 나를 응시하고 있는 느낌이 하나의 사상으로 형성되는 것이다. “오직 그대의 눈만이 두렵게 / 나를 응시하는구나, 영원이여!” 영원이 나를 응시한다. 철학자는 이 경험을 시로 승화시킨다. 하나가 둘이 된 경험을 각운으로 또 시구로 붙잡아둔다. 비록 그것이 서툴게 읽혀지더라도 그것은 시가 문제가 아니다. “어느 누군가가 책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이 그 책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389쪽) 니체의 변호에도 일리가 있다.

수많은 독자는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을 남의 탓으로 돌린다. 특히 대부분의 고전의 한계는 번역이라는 과정을 거칠 수밖에 없다는 데 있다. “모든 고전적인 책이 지닌 최대의 약점은, 그것이 너무 극단적으로 저자의 모국어로 씌어졌다는 점이다.”(인간적II, 309쪽) 그래서 너무 말에 얽매이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현상이 너무 집착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고전을 읽을 때는 그래서 “이성? - 그것은 어리서은 것 / 이성과 혀는 자주 걸려 넘어지지!”(10쪽)라는 구절을 염두에 두고서 읽어야 한다. 번역을 탓하는 독자만큼 안타까운 일이 또 없다. 고전을 읽기 위해 그러면 외국어를 배워야 하는가? 이런 극단적인 생각까지 하게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일정한 거리를 두고 읽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말에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이다. 현상 너머에 있는 본질을 보고자 하는 노력으로 독서에 임해보는 것이다. 그러면 니체도 친구가 될 수 있다.

“차라투스트라가 내 걸을 지나갔다...” 이 말이 자신의 말이 될 때까지 읽어야 한다. 읽는 속도가 빠르다고 자랑하지 않도록 하자. 이념이 보일 때까지 느리게 읽는 것도 좋다. 아름다움이란 화살은 느리게 날아간다고 했다. “아름다움이라는 느린 화살”(인간적I, 170쪽)에 심장이 뚫리는 쾌감을 맛보고 싶다면 서두르지 말아야 한다. 니체의 글을 읽으며 니체의 음성이 들릴 때가 있을 것이다. 유리처럼 깨지기 쉬운 정신으로 조심스럽게 걸어가는 니체를 만날 것이다. “우리는 유리로 만들어져 있으니”(219쪽) 하는 소리다.

## 7. 따뜻한 남국에서 따뜻한 마음으로

《즐거운 학문》 전체를 관통하는 분위기는 건강이다. 따뜻하고 온화하다. 이것을 두고 프로방스Provence적 분위기라고도 한다. 프랑스의 남동쪽 지방부터 이탈리아로 이어지는 지중해 연안의 분위기를 포괄한다. 니체가 새로운 바다를 경험했던 제노바Genova도 이 지역에 해당한다. “열린 바다로 무작정 / 내 제노바의 배는 향한다”. 마음이 열렸다. 모든 감각이 열리는 기분이다. 긴장이 풀리고 정신은 자유를 선사받는다. “그때는 웃음이 지혜와 결합되어 ‘즐거운 학문’만이 남게 될 것이다.”(66쪽) 즐겁기만 하다. 공부가 재밌다. 이것이 프로방스적 분위기라는 것이다. 책의 제목 자체도 이미 “프로방스적 개념”(이 사람, 418쪽)을 표방하고 있다.

이런 프로방스적 분위기를 잘 표현한 시 한 편을 읽어보자. 《즐거운 학문》을 마감하는 시다. 번역서를 기준으로 4페이지에 달해 좀 긴 듯하지만 마지막 시라서 전체를 인용해본다. 따뜻함을 느껴보자. 온화한 바람을 느껴보자. 긴장을 풀어주는 상쾌한 바람이다. 《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를 이끄는 감정이다. 감정이 좋아질 때까지 독서를 미루자. 니체의 감정 속에 빠져들어야 시가 읽혀지기 때문이다. 자신의 이성으로 억지로 읽으려 하지 말자. 바람에 몸을 맡겨보자. 그러면 알바트로스처럼 높이 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때 비상을 가능하게 하는 운명이 보일 것이다. 그때 “시인과 기사와 자유정신의 합일을; 특히 <북서풍에게> 라는 마지막 시는 실례를 무릅쓰고 말하자면! 도덕을 넘어서 춤을 추게 하는 자유로운 춤곡으로, 완벽한 프로방시즘이다”(이 사람, 418쪽)라는 말을 몸으로 느낄 수 있을 것이다.

## 복서풍에게

춤의 노래

그대 구름을 몰아대는 사냥꾼 복서풍이여!  
우울한 살인자, 하늘의 청소부  
소리치는 자여, 나는 그대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우리 둘은 하나의 품에서 나온  
첫아이, 하나의 운명을 지니도록  
영원히 예정된 것은 아닐까?

여기 매끄러운 바윗길에서  
춤을 추며 나는 네게로 달려간다  
네가 피리를 불고 노래할 때 춤을 추며  
너는 배도 노도 없이  
자유의 가장 자유로운 형제로서  
거친 바다로 뛰어든다

깨어나자마자 나는 네가 부르는 소리를 듣고  
암벽의 층계로 내달린다  
바닷가의 황색 벽을 향해  
기쁘도다! 그때 너는 밝게 빛나는  
다이아몬드의 격류처럼  
당당하게 산에서 내려왔다

하늘의 너른 마당 위에서  
나는 너의 말들이 달리는 것을 본다  
네가 탄 마차를 본다  
네 손이 날랜 동작으로  
말의 등 위에서  
번개처럼 채찍을 휘두르는 것을 본다

빠르고 힘차게 몸을 내던져  
마차에서 뛰어내리는 것을 본다  
화살처럼 몸을 웅크려  
심연 속으로 하강하는 것을 본다  
장밋빛 아침놀 사이로 내리비치는  
황금빛 햇살처럼

파도의 등을 타고  
무수한 파도의 등을 타고 춤을 춰라

새로운 춤을 창조하는 자를 찬미하라!  
우리는 수천 가지 방식으로 춤을 춘다  
자유로워라 - 우리의 예술이여  
즐거워라 - 우리의 학문이여!

모든 꽃들로부터  
우리의 영광을 위한 하나의 꽃과  
화관을 장식할 두 개의 이파리를 피워내자!  
트루바두르의 음유시인처럼  
성자와 창녀 사이에서  
신과 세상 사이에서 춤을 추자!

바람과 손잡고 춤추지 못하는 자  
자신을 묶어놓아야만 하는 자  
통명스런 늙은 불구자  
위선의 탈을 쓴 자  
명예를 좇는 천치, 덕을 뽐내는 거위들은  
우리의 낙원에서 떠나거라!

거리에 먼지바람을 일으켜  
병든 자들의 코에 불어넣어라  
병든 자들을 내몰아라!  
모든 해안을 해방시켜라  
매마른 가슴의 호흡으로부터  
용기 없는 눈길로부터!

하늘을 흐리게 하는 자  
세상의 비방자, 구름을 밀고 오는 자를 내쫓아라  
하늘의 제국을 밝게 빛나게 하라!  
소리쳐라, 오 자유로운 정신이여  
너와 함께 둘이서  
나의 행복은 폭풍처럼 소리친다

- 그리하여 영원토록 이 행복의 기억을  
유산으로 물려받아라  
이 화관을 집어 올려라!  
더 높이, 더 멀리 그것을 던져 올려라  
하늘사다리로 폭풍을 몰아쳐  
그것을 - 별에 매달아라! (414쪽 이후)

《즐거운 학문》의 대장정을 마감하는 시다. 따뜻한 바람에게 들려주는 노래다. <북서풍에게>

가 시의 제목이다. 온화한 바람, 이 바람과 함께 “춤의 노래”를 부른다. 부제목이다. 춤을 추며 끝내는 책이 《즐거운 학문》이다. 《비극의 탄생》에서 춤을 추라고 종용했다면 여기서 흥겨운 춤과 행복한 노래 그리고 기쁨이 넘치는 소리로 가득하다. 즐거움으로 충만한 학문이다. 지금까지 알고 있던 학문이 아니다. 새로운 학문이다. 웃음소리가 가득한 학문이다.

“그대 구름을 몰아대는 사냥꾼 북서풍이여!” 시의 시작부분이다. 구름은 번개를 필요로 할 때는 반드시 있어줘야 하는 존재다. 하지만 늘 번개만 칠 수만은 없다. 구름이 걷히고 맑은 하늘이 열려야 한다. 그래야 건강이 회복되기 때문이다. 북서풍은 사냥꾼이다. 구름을 쫓아주고 있기 때문이다. 질병이 인식을 이끌었다면 이제는 그 인식이 질병을 내몰고 있다. 허무주의 철학은 살인의 원칙이라 했다. “죽음에의 의지”(101쪽)를 죽여야 하기 때문이다. 그것도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죽여야 한다. 하지만 살인 자체가 즐거울 수는 없다. 그래서 “우울한 살인자”라는 표현이 어울린다. 죽음을 죽여야 하는 허무주의의 원칙은 삶을 위한 행위일 뿐이다. 그리고 북서풍은 “하늘의 청소부”라 불린다. 구름을 걷어치우기 때문이다.

니체는 북서풍을 사랑한다. “나는 그대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가 사랑했던 것은 또 높이 나는 알바트로스였다. “너를 생각하면, 흘러내리는 눈물 / 그리고 또 눈물, - 아, 나는 그대를 사랑하노라!” 높이 나는 새를 사랑하고 또 구름을 쫓아주는 바람을 사랑한다. 허무주의 철학이 사랑하는 대상들이다. 그리고 북서풍에서 허무주의 철학의 운명을 발견하게 된다. 삶의 하늘에 드리운 구름을 거둬주는 바람의 역할에서 영원히 예정된 하나의 운명을 확인한다. 바람과 ‘나’는 “하나의 품에서 나온 / 첫아이”라는 인식이 그것이다.

두 번째 연에서는 북서풍을 쫓아가려는 의지가 엿보인다. “여기 매끄러운 바윗길에서 / 춤을 추며 나는 네게로 달려간다”. 북서풍을 쫓아가는 마음이 흥겹다. 춤을 추게 하는 마음이다. 넘어질까 전전긍긍하는 경직된 춤이 아니다. 얼음처럼 매끄러운 바윗길에서도 멋진 춤을 출 수 있는 춤의 대가다운 면모다. 그리고 바다로 뛰어드는 바람을 묘사한다. 파도를 만드는 바람이다. “너는 배도 노도 없이 / 자유의 가장 자유로운 형제로서 / 거친 바다로 뛰어든다”. 그렇게 바람은 눈에 보이는 현상의 원인이 된다. 파도 뒤에는 언제나 바람이 있다.

그리고 세 번째 연에서는 오르고 내려오는 모습이 연출된다. “나는 네가 부르는 소리를 듣고 / 암벽의 층계로 내달린다”. 기쁜 발걸음이다. 바람을 쫓아가는 것은 즐거운 일이다. “그때 너는 밝게 빛나는 / 다이아몬드의 격류처럼 / 당당하게 산에서 내려왔다”. 산들바람이 산에서 불어온다. 올라가고 있는 나를 맞이한다. 다이아몬드처럼 빛나는 바람이 당당하게 산에서 내려오며 암벽의 층계를 올라가는 나를 맞이한다는 것이다.

네 번째와 다섯 번째 연은 하늘의 넓은 마당을 내달리는 마차에 대한 비유가 이어진다. 바람은 마차를 타고 달리다가 번개처럼 채찍을 휘두르고 마차에서 뛰어내려 화살처럼 심연으로 하강한다. 바람은 번개처럼 강렬하고 화살처럼 빠르다. 그 현상은 장밋빛 아침놀처럼 찬란하게 불어오는 듯도 하다. 황금빛 햇살의 바람이다. 바람이 색깔을 띠고 있다. 성스럽고 희망차다.

여섯 번째 연은 시선이 바다로 향한다. 그리고 파도를 바라본다. 파도와 함께 춤을 추는 바람을 인식한다. “파도의 등을 타고 / 무수한 파도의 등을 타고 춤을 춰라”. 바람은 춤의 대가 같다. 늘 새로운 춤을 추고 있기 때문이다. 수천 가지 방식으로 춤을 출 수 있기 때문이다. 매번 다른 모습으로 형성되는 파도의 등 위에서 다양한 춤사위를 펼치는 바람에 감격한다. 바람은 자유롭다. 바람은 자유로운 자신의 본성으로 예술을 창조한다. 장관이다. 자유와 함께 밀려드는 감정은 즐거움이다. “즐거워라 - 우리의 학문이여!” 《즐거운 학문》이라는 책의 제목이 전면에 나선다. 학문이 즐겁다. 공부가 재밌다. 이보다 더 나은 삶이 또 있을까.

인식은 정점에 도달한 듯하다.

일곱 번째 연은 꽃밭을 묘사한다. 대지의 힘을 집결시켜 놓은 곳이다. 그곳에서 피어난 꽃들을 바라보면서 삶의 가치를 인식한다. 아름다움으로 찬탄하다. 아름다움에 대한 느낌으로 가득하다. 꽃밭에서 느끼는 감정은 삶을 힘으로 채워준다. 꽃은 삶의 영광이다. 꽃은 실존이 보여줄 수 있는 아름다움의 절정이다. 이런 꽃들 사이에서 어떤 형식에 얽매이지 않은 자유로운 시인, 특히 “트루바두르의 음유시인처럼 / 성자와 창녀 사이에서 / 신과 세상 사이에서 춤을 추자!”고 중용한다. 파도를 타고 춤을 추던 바람이 이제는 꽃들 사이에서 춤을 춘다. 선한 꽃 악한 꽃 가리지 않고 함께 춤을 춘다. 신도 좋고 세상도 좋다. 춤을 출 수만 있다면 모두가 꽃이 된다. 꽃은 아름답다.

여덟 번째 연부터 열 번째 연까지는 좀 배타적이다. 허무주의 철학도 용납할 수 없는 것이 있다. 일단 여덟 번째 연에 집중하자. 허무주의 철학이 싫어하는 것들을 조목조목 나열한다. 첫째는 “바람과 손잡고 춤추지 못하는 자”이고, 둘째는 “자신을 묶어놓아야만 하는 자”이며, 셋째는 “통명스런 늙은 불구자”이고, 넷째는 “위선의 탈을 쓴 자”이며, 다섯째는 “명예를 좇는 천지”이고, 여섯째는 “덕을 뽐내는 거위들”이다. 참 많기도 하다.

춤! 춤을 출 수 있는 존재만이 허무주의 철학이라는 축제에 초대된다. “우리의 첫 질문은 다음과 같은 것이다. ‘그는 걸을 수 있는가? 더 나아가 춤출 수 있는가?’”(366쪽) 이 질문에 긍정적인 대답을 할 수 있는 자만이 니체와 친구가 될 수 있는 것이다. 춤은 니체의 신앙이다. “나는 춤을 출 줄 아는 신만을 믿으리라.”(차라, 65쪽) 춤을 출 수 없는 자는 동참하지 못하고 늘 밖에서 훈수만 드는 그런 상황만 연출해낼 뿐이다. 춤을 출 수 없다면 허무주의 철학은 길도는 나사와 같다. 사물을 견고하게 엮어줄 수가 없다. 사랑받지 못하는 자가 사랑을 혐오한다. 춤출 수 없는 자가 춤을 업신여긴다. 웃을 수 없는 자가 웃음을 금지시킨다. 자유롭지 못한 정신이 자유정신을 폄하한다. 늙은 사람이 청년을 질투한다. 위선의 탈을 쓴 자가 솔직한 자를 벌거벗었다고 놀린다. 명예를 좇는 자가 자기 갈 길을 걷는 자를 유혹한다. 덕을 뽐내는 자들이 발로는 물밑 작업을 한다. 당당하지 못한 모든 것들에 대해 허무주의 철학은 단호하다. 능력이 부족한 것들에 대해 냉정하다. 아름답지 못한 것들에 대해 그 어떤 용서도 없다. 이런 모든 것들은 “우리의 낙원에서 떠나가라!” 허무주의가 준비하는 세상은 그런 자들의 것이 아니다. ‘세상을 떠나라!’ 불호령이 떨어졌다.

아홉 번째 연에도 배타적인 면모가 이어진다. 병든 자를 원치 않는다. 허무주의 철학은 건강 철학이다. 건강을 위한 철학이다. 허무주의 철학은 “마음에 숨겨진 질병을 드러내 보여줌으로써 그에게 커다란 도움을”(인간적Ⅱ, 52쪽) 주고자 하는 철학이다. 건강하지 못한 것은 “악천후나 폭풍을 겪지”(90쪽) 못한 결과다. 나약한 천성은 다양한 독을 이겨내지 못한 결과다. “강한 자는 이것을 독이라고 부르지 않는다.”(90쪽) “고통을 견디는 것은 최소한의 것이다.”(294쪽) 더 나아가 자신에게 고통을 가할 수 있는가? 그것이 이 대지 위에 살고 있는 모든 이들에게 허무주의 철학이 던지는 질문이다. “철학은 개인이 건강해지는 법에 대한 본능”(아침, 413쪽)이라고 했다. 수천 가지의 다양한 기술로 단련된 삶의 대가를 원하는 것이다. 생활의 달인만이 허무주의 철학이 환영하는 존재다.

병든 자도 일곱 번째 연에서 날날이 언급한 부정적인 존재들과 함께 “우리의 낙원”에서 떠나야 할 존재다. “병든 자들을 내몰아라!” 아직 삶의 현장에 속할 준비가 되지 못한 자는 지금과 여기를 떠나야 한다. 그들이 가야할 곳이 있다면 대양이다. 사막이다. “삶의 사관학교”(우상, 77쪽)다. 훈련소로 떠나야 한다. 그곳에서 죽음 직전까지 가는 혹독한 훈련을 받아야 한다. 지옥 훈련을 견뎌내야 한다. 그 후에야 삶의 현장으로 되돌아올 수 있는 것이다. 삶은 아무

에게나 주어지는 그런 것이 결코 아니다.

“모든 해안을 해방시켜라”. 해방시키고 못시키고는 우리의 몫이다. 해안을 개방하라. 철조망으로 막혀 있는 해안은 자유로운 해안이 아니다. 자유롭게 떠날 수 있는 그런 해안이 아니다. 허무주의 철학은 해안에 쳐져 있는 철조망을 거둬들이기를 원한다. 해안에 자유를! 이것이 허무주의적인 요구사항이다. 방어도 좋지만 더 좋은 것은 호전적인 자세다. 적극적인 자세다. 힘이 결집된 상태이다. 용기로 충만한 가슴과 눈빛이다. “매마른 가슴의 호흡”은 싫다. “용기 없는 눈길”도 싫다. 허무주의 철학의 호불호는 분명하다.

열 번째 연에서 시선은 다시 하늘로 향한다. 그리고 구름을 바라본다. 부정적인 구름이다. 배타적인 입장표명이 여기서도 이어진다. “하늘을 흐리게 하는 자 / 세상의 비방자, 구름을 밀고 오는 자를 내쫓아라”. “우리의 낙원”에 속할 수 없는 자다. 허무주의의 낙원에 세상을 비방하는 자는 들어올 수 없다. “세계의 실존은 오로지 미적 현상으로만 정당화된다.”(비극, 16쪽) 이제 이런 문장쯤은 외워졌을 것으로 믿는다.

허무주의 철학은 세상을 변호하고자 한다. 인간의 삶을 지켜주고자 한다. 세상을 모르고 떠드는 소리로부터 보호막을 치고자 한다. “수녀처럼 세상을 모르면서 세상을 버리는 것은 무익하고 어쩌면 우울한 고독을 낳는다.”(아침, 343쪽) 이런 고독은 우울하다. 세상을 모르고 세상을 등지는 것은 바람직한 처사가 아니다. 그런 ‘세상의 비방자’는 허무주의 철학과 함께 어울리지 못한다. “기쁨을 모르는 사람이 단 한 명만 있어도 집안 전체에 우울하고 찌푸린 하늘을 드리우게 된다.”(242쪽) 불행은 적극적이다. ‘미꾸라지 한 마리가 물을 흐린다’는 말이 있다. 우울함이 지닌 전염의 힘은 강렬하다. 경계의 끈을 늦춰서는 안 되는 감정이다. “나는 나를 위해 나만의 태양을 창조하고 싶다.”(292쪽) 이 말을 끊임없이 반복해야 한다. 자기 자신을 위한 태양은 구름 한 점 없어야 창조된다. 삶은 창조를 통해서만 의미를 부여받는다.

“하늘의 제국을 밝게 빛나게 하라!” 지상명령이다. 정언명법이다. 허무주의 철학이 지향하는 목적이다. 인간은 자기 자신의 태양을 위하여 살고자 해야 한다. 삶의 의지는 그런 것이어야 한다. “소리치려, 오 자유로운 정신이여 / 너와 함께 둘이서 / 나의 행복은 폭풍처럼 소리친다.” 바람과 함께 소리친다. 바람소리와 함께 나의 행복이 소리친다. 자기 안의 자유로운 정신이 함성을 지른다. 우울하게 만드는 구름을 걷어내고 하늘의 제국을 밝게 빛나게 하는 함성이다. 이 함성과 함께 자유정신 시대를 마감하고 차라투스트라 시대로 넘어간다.

이제 시를 마감하는 열한 번째 연이다. 감각에 겨워 말을 조금 망설인다. 다시 힘을 모으는 느낌이다. 그리고 마지막 요구사항이 쏟아진다. 명령어들만 모아보면 ‘받아라’, ‘올려라’, 그리고 또 한번 ‘올려라’, 그리고 끝으로 ‘매달아라’가 그것이다. 행복이라는 기억의 꽃으로 엮어 만든 화관을 유산으로 물려받아 높이 올리고 또 올려 결국에는 그것을 별에 매달아라고 요구한다. 별은 밤이 되어야 빛난다. 어두운 세상에서 빛나는 존재가 되어준다. 행복의 기억은 어둠 속에서 꿈과 희망의 원인이 된다. 인생이 고해라고 눈물의 바다라고 세상이 생지옥이라고 삶이 힘들고 어렵다고 수많은 말들이 삶을 주눅 들게 하지만 행복의 기억만 상실하지 않는다면 언제든지 열린 바다로 미지의 바다로 희망의 항해를 감행할 수 있을 것이다.

《즐거운 학문》이 펼쳐 보여준 허무주의 철학은 행복론으로 마감한다. 행복해야 허무가 값지다. 자유로운 정신의 자유로운 춤은 어디에도 얽매임이 없어야 한다. 그런 춤이 허무주의적인 춤이다. 춤은 신이 된 인간이 보여줄 수 있는 최고의 긍정형식이다. “이 행복의 기억을 / 유산으로 물려받아라”고 니체는 말한다. 독서를 한 대가다. 끝까지 읽어준 선물이다. 행복의 기억! 그것이 허무주의라는 길목에서 니체가 바라본 것이다. 그것을 니체는 우리에게 정성어린 선물로 전해주고자 한다.

이동용 (010-3261-3913; 인터넷카페 <http://cafe.daum.net/germanistik>)